FilmStory 총서 05

영화를 멈추다

서른 편의 영화, 서른 개의 장면



김혜리 지음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김 혜 리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씨네21』에 입사했다. 1998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UEA)에서 영화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1999년 11월 다시 『씨네 21』에 돌아와 현재까지 영화와 영화인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 『김혜리 기자의 영화야 미안해』가 있다.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표지·본문 디자인_이선화

FilmStory 총서 05

영화를 엄추다

서른 편의 영화, 서른 개의 장면



김혜리 지음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KOFA) 소개

한국영상자료원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상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구로서 1974년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우리 영상문화유산이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복원되어 후대에 영구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영상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1991년부터 시네마테크운동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영화사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화박물관, 영상자료를 첨단의 환경에서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영상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영상자료의 수집,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복원,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등 디지털아카이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화사연구 및 발간사업을 통해 한국영화 연구와 보급의 전진기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은 한국영상자료원에게 새로운 출발의 해입니다. 상암동의 아카이브 전용 청사가 전면 개관하고 한국영화박물관과 시네마테크 3개 관이 문을 열며 우리 고전영화의 온라인 서비스도 본격화합니다. 한국의 영화 및 영화 관련 콘텐츠가 모두 모여 있는 곳이 한국영상자료원인데 이제 그 콘텐츠들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여러 개의 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영화사연구소를 열고 한국영화사구술총서와 자료총서, 연구총서에 이어 'FilmStory총서'를 내놓는 것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이제 한국영화 지식과 연구의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뜻합니다. 자기 땅에서 유배된 한국영화사를 복권시키고 대중적 관심과 학문적 연구의 중심으로 원위치시키는 것은 영화 아카이브 기관으로서 한국영상자료원의 마땅한 임무라고 봅니다.

'FilmStory총서'는 한국영화 그리고 한국영화사의 다양한 주제들을 필자마다의 개성적이고 자유분방한 형식에 담아 포켓북 한 권씩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 첫째 권은 영화학도나 일반인이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국영화사 통사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총서가 점차 목록을 늘려가면서 마치 모자이크의 조각들처럼 정교한 디테일, 풍부한 해석들과 함께 한국영화사의 큰 그림을 완성해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조선희

차례

서문 | 006

01	거미숲	여보, 그건 꿈이 아니야	010
02	게임의 법칙	냉엄한 공중전화 법정	014
03	고양이를 부탁해	그녀를 국회로!	018
04	괴물	배고픈 아이를 위한 기도	022
05	기쁜 우리 젊은 날	아버진 다 알고 계셨던 거야	026
06	달콤한 인생	이 새끼, 끝까지 멋있으려고 하네	030
07	마부	수레바퀴와 함께 사라지다	034
08	밀양	항복의 너털웃음	038
09	봄날은 간다	새벽빛이 데려간 꿈처럼	042
10	빈집	지붕도 없이, 법도 없이	046
11	사랑니	부재의 깃발이 나부끼다	050
12	4인용 식탁	외면하고 싶은 그녀의 시선	054
13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나를 수리해줘, 제발	058
14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님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063
15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라소옥뎐(傳)	067

16	여고괴담	그 소녀, 아직 학교에 있다	072
17	외출	화장실의 소금기둥	076
18	용서받지 못한 자	굴욕은 어떻게 순환되는가	080
19	우아한 세계	퍼펙트하다, 퍼펙트해	084
20	자유부인	자유는 개뿔!	088
21	질투는 나의 힘	필요한 건 우상이었어	092
22	짝패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096
23	청연	현실이 사라지는 창공	100
24	춘향뎐	연분은 저항이었네	104
25	칠수와 만수	청춘의 페달	108
26	타짜	고수의 현기증	112
27	파이란	모두들 친절합니다	116
28	플란다스의 개	아파트 지하실 미스터리	120
29	해피 엔드	비밀의 빛	124
30	혈의 누	익명의 섬	128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인간의 부질없는 욕심은, 유용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영화는 그 중 늦게 출현한 발명품입니다. 〈박하사탕〉의 마지막 장면에서 영호(설경구)가 엄지와 검지로 만든 격자 안에 사랑하는 여인을 담았을 때, 〈미술관 옆 동물원〉의 춘희(심은하)가 심심한 일상 풍경에 손가락 테두리를 둘러 의미를 불어넣었을 때, 두 사람은 최초의 촬영감독과 같은 희열과 고민을 맛보고 있었을 겁니다. 흐르는 삶을 붙잡아 가둔 영화 안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잠깐!"이라고 외치고 싶어지곤 합니다.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의미심장해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영역에 존재함으로써, 잠시 멈추어 응시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은 비범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멈추다』는 저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던 한국영화 속 30개 장면을 묘사한 글 모음입니다. 서른 개의 신 중에는 영화가 끓어올라 기화하는 비등점도 있고, 덩어리를 맺는 빙점도 있습니다. 영화를 논할 때에도 자주 쓰이는 '시점point of view'이라는 단어에는 "구경하기 좋은 자리"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책에 묶은 장면의 대부분은, 그 영화의 전경全景을 파악하기 용이한, 전망 좋은 자리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지 화면으로 프레임을 살펴야 하는 이 기획은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엄두를 내기 어

려웠을 것입니다. 영화를 앞뒤로 경중경중 넘나드는 DVD 플레이어라는 도구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영화에 대한 '불경'한 행동을 가능하게 해준 셈입니다. 오늘날의 관객에게 가까이 들여다보고 엽엽한 손끝으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서문을 쓰는 지금 저는, 남들에게 호의로 선사 받은 구슬을 모으고 꿰어 엉성하지만 소중한 목걸이 하나 매듭짓는 마음입니다. 시리즈의 한 권으로 이 기획을 승낙해주신 한국영상자료원 조선희 원장님과 정종화 연구원, 일부 원고에 소중한 지면을 내주신 『한겨레』 'ESC' 섹션의 김은형 기자와 고경태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속편을 이어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고, 기술적 해설을 보완하고 관점을 다채롭게 할 것입니다. 여기 실린 몇 편의 글을 읽은 지인들은 "그 영화를 보았지만 그런 장면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본인의 뇌리에 인화된 다른 잔상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영화 비망록을 엿볼 수 있다면, 한 편의 영화가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를 짜내는 베틀이 될 수 있는지 놀랄 게 분명합니다. 오늘밤은 세상 모든 관객의 '정지된 영화'가 벽 가득히 걸린 화랑 한가운데 누워 잠드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백하건대, '멈춤'은 결국 영화를 사사롭게 소유하고 싶은 탐욕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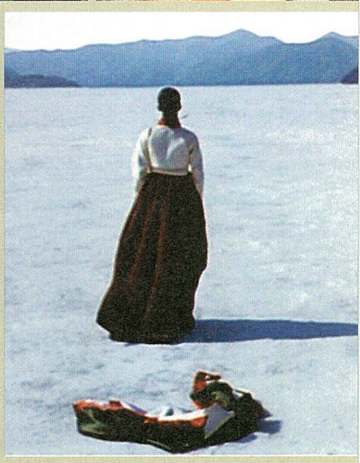












01 거미숲
Spider Fo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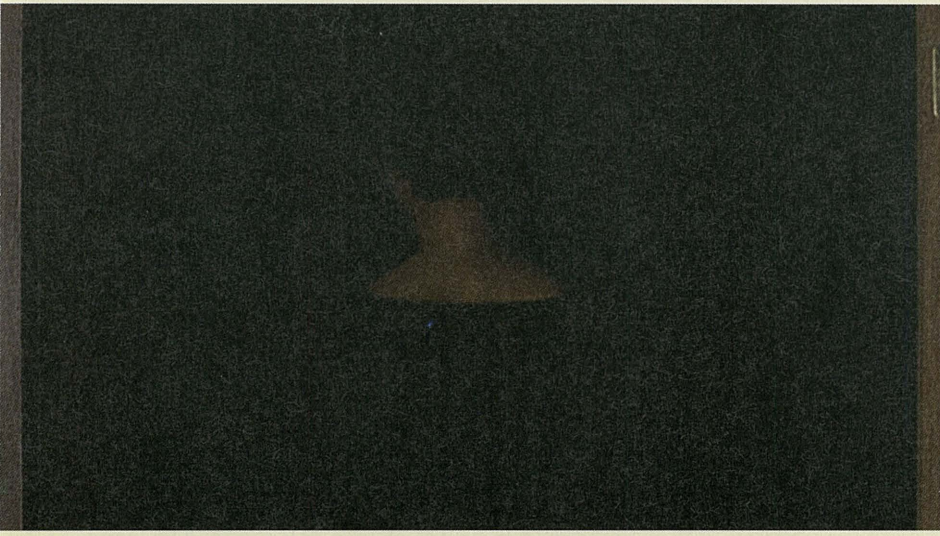
여보, 그건 꿈이 아니야

꿈도 수십 년 꾸다 보면 관록이 붙는지, 꿈속을 한창 헤매는 중에도 내가 왜 이런 꿈을 꾸고 있는지 너끈히 짐작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유가 될 때는 꿈에 등장한 지인에게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불러내게 됐다고 변명할 때조차 있다. 나와 또 다른 내 자아가, 낮에 끝내지 못한 두서없는 협상을 마저 벌이는 시간이 꿈이다. 만약 죽음도 잠과 같아, 꿈을 동반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휴식하지 못할 것이다.

상상력과 무의식의 거울 앞에 현실을 놓고 그 반영을 그리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이지러진 반영으로부터 거울 앞에 놓인 현실의 형상을 가늠하는 영화도 있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멀홀랜드 드라이브〉, 〈인랜드 엠파이어〉나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 〈수면의 과학〉 그리고 송일곤 감독의 〈거미숲〉은 후자의 예다. 숲 속 외딴 집에서 방송사 국장과 젊은 여자 아나운서가 낫에 찍힌 시체로 발견된다. 목격자는 죽은 여인(강경헌)과 재혼을 앞둔 방송사 프로듀서 강민(감우성). 범인을 뒤쫓다가 머리를 다쳐 14일간 의식을 잃었던 그는 깨어나기 무섭게 숲으로 돌아가려 한다.

〈거미숲〉은 꿈의 문법으로 씌어진 이야기다. 살인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현재와 범죄가 저질러진 과거, 그리고 비극의 뿌리가 묻힌 대과거가 종횡으로 연결된다. 심지어 현실과 환상, 기억이 한 광경을 구성하기도 한다. 여기는 난생처음 만난 여인이 아내와 똑같은 목소리로 어린 시절 첫사랑을 들춰내는 몽환의 세계다. 〈거미숲〉을 여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도는 뇌의 단면도다. 동굴은 실제 동굴인 동시에 마음의 동굴이고, 터널은 의식의 터널이며, 사진관은 기억의 사진관이다. 하나같이 어둠이 흥건한 이 세 개의 공간들은 시간의 궤도가 꼬여 겹치는 지점이기도 하다. 거기서 주인공 강민은 기어코 잃지 말았어야 했으나 잃어버린 사람들과 재회한다. 개중에는 자신의 뒷모습도 있다.

〈거미숲〉의 가장 깊은 슬픔은, 다시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이미 이별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깨달을 때 솟아난다. 한밤중에 귀가한 강민은 의자에 피로한 몸을 기댄다. 그는 무용가 아내 은아(서정)의 해외 공연에 동행하기 위해 몰아쳐 일하는 중이다. 인기척을 들은 아내가 불 꺼진 방으로부터 홀연 나타난다. "나쁜 꿈을 꿨어." 차를 따라주는 아내에게 강민이 잡담을 한다. 당신 공연에 동행하려고 했는데 상사가 변덕을 부리는 바람에 공항에서 포기하고 혼자 돌아오는 꿈이었다고. 그런데 그 비행기가 악천후로 추락해 당신만 죽는 악몽이었다고. "그랬구나.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귀 기울이던 아내가 담담히 끄덕인다. 그리고 덧붙인다. "여보, 그건 꿈이 아냐." 그녀는 다시 컴컴한 방을 향해 돌아선다. 검은 머리칼과 옷자락은 어둠에 닿자마자 빨려들고, 컷바퀴와 뒷목덜미만 남아 희게 빛난다. 스러지는 그 빛을 그저 바라볼 뿐 강민은 붙잡지 못한다. 영화는 남자가 아내 이전에도 사랑을 잃었고 아내 이후



에도 사랑을 잃을 것이라고 들려준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에 홀로 남겨지는 공포는 우리를 가위눌리게 한다. 남자는 떠난 이들을 기억하느라 소진되어가는데, 정작 그를 기억해줄 사람은 등 뒤에 없다. 자신을 기억해줄 사람을 새로 만들어보려고 모처럼 결심하고 어렵사리 시도하면, 운명이 험상궂게 뒤틀린다. 우리는 천천히 깨닫는다. 분노가 그에게 썩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강민은 흐느낀다.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대부분의 미스터리는 "누가?", "왜?" 혹은 "어떻게?"를 묻는다. 〈거미숲〉은 그 세 가지 질문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생김새 교묘한 수수께끼다. 우리가 탐독하는 숱한 미스터리의 공통 부제는 결국 '인간'일지도 모른다.

거미숲(Spider Forest)	109분 | 연소자불가
감 독 송일곤 | **각 본** 송일곤 | **각 색** 홍유성, 김동욱 **출 연** 감우성, 서정, 강경헌, 장현성 **제 작** 오크필름 | **개 봉** 2004년 9월 3일	

02 게임의 법칙
The Rules of the Game

냉엄한 공중전화 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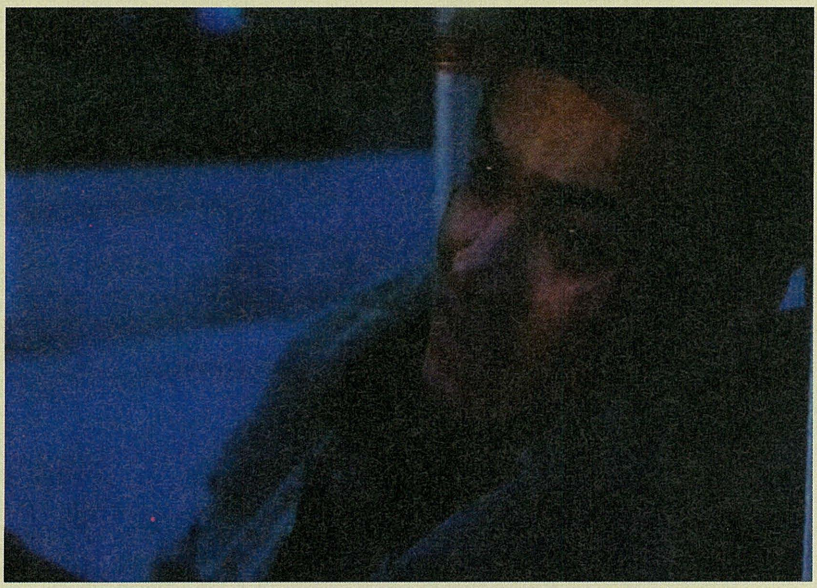
서울은 거대한 트랜스포머다. 김성수 감독의 〈비명도시〉(1993)에 나왔던 것과 같은 평범한 골목도 어느새 찾기 힘든 공간이 됐다. 아직 핸드폰이 손목시계만큼 흔해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멀리 떨어진 타인과 '교신' 중인 도시인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급한 전언이 있거나, 가족과 동료가 듣지 않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들은, 좁은 유리상자로 들어가 웃고 성내고 속삭이고 허세를 떨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언극 배우처럼 보이곤 했다. 거리에 점점이 흩어진 공중전화 부스는 단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한 독백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많던 유리상자들은 사라졌다. 핸드폰은 따로 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아무 데서나 중얼거리고 긴급하지 않은 말의 부스러기를 쉴 새 없이 입과 손가락으로 타전한다. 독백은 더 이상 독백이 아니게 되었다.

한국영화에도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인상적인 풍경이 여럿 있다. 〈게임의 법칙〉의 마지막 장면은 그 중에도 한손에 꼽힌다. 주인공 이용대(박중훈)는 신문에서 본 조폭 두목 유광천(하용수)을 찾아

무작정 상경한 싸움꾼이다. 용대는 '알고 보면 마음은 여린 터프가이' 따위가 아니라, 김동리의 「붉은 산」에 등장하는 '삵'에게 견줄 만한 진짜로 나쁜 남자다. 타인과 제대로 대화하는 법은 아예 배운 적이 없고, 조금만 수틀리면 패고 짓밟기 일쑤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오연수)와의 섹스도 강간하듯 할 줄밖에 모르는 용대는, 상경길에 사기당한 돈을 메울 길이 없자 급기야 애인 태숙을 술집에 팔아버린다. 그러고는 제가 팔아먹은 주제에 "오빠가 구해주겠다"고 폼을 잡는다. 주먹으로 출세만 하면 모든 과오와 빚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용대는, 그의 목표와 수단이 상충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한다. 보스의 운전기사로 발탁된 용대에게 '하사' 받은 휴대폰은 꿈꾸던 부귀영화를 뭉뚱그린 부적과 같다. 기쁨에 겨운 용대는 고향으로 자랑 전화를 거는데 그 대사가 기막히다. "이거? 핸드폰이야. 나, 걸으면서 전화하고 있어."

앞뒤 가리지 않는 헌신으로 보스의 눈에 잠시 들었던 용대는, 얼마 후 똑같은 이유로 용도 폐기된다. 야수를 오래 기르려는 조직은 없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방구석에 처박혀 자신이 일회용 소모품이었음을 용대가 어렴풋이 깨달을 즈음, 유광천에게 "무식한 놈"이 필요한 성가신 일이 생긴다. 수표를 받은 용대는 결코 예전이라면 던지지 않았을 질문을 던진다. "누굽니까? 꼭 죽여야 됩니까?"

운명의 밤, 서울 하늘에는 석가탄신을 기리는 연등이 탐스럽게 피어난다. 반지하층 천장으로 간신히 비껴들거나, 네온사인으로 분칠한 빛이 고작이던 〈게임의 법칙〉에서 예외적으로 따뜻한 빛이다. 끔찍한 임무를 마치고 손에 피를 묻힌 용대는, 해방감에 들떠 태숙에게 공중전화를 건다.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 용대의 시야에, 한때 그를 존경한다고 쫓아다니던 나이 어린 조직원이 들어온다. "저 애가



왜 여기?"라는 의문이 미처 떠오르기도 전에 폭발음과 함께 전화 부스 유리가 부서져내리고, 용대의 떨리는 손이 머리의 총구를 더듬는다. 낙원에 들어가는 한 계단을 남기고 주인공이 산화하는 풍경은 이후 오랫동안 한국 뮤직비디오의 상투적 클라이맥스가 됐다. 그러나 뮤직비디오의 상습적 후렴이 관객의 연민을 자동 유발시키는 장치라면, 〈게임의 법칙〉의 전화 부스는 냉정한 법정이다. 용대는 (뮤직비디오의 해사한 청년들과 달리) 동정의 여지가 없는 인물이다. 그는 폭력의 질서가 작동하는 데에 봉사했고 바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고리로 선택된 자에 의해 파괴당했다. 그러므로 용대의 비극은 개인의 불운을 한탄하는 대신,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질서의 추악함을 꿰뚫어본다. 전화 부스 모서리에 무너져 내린 용대의 부릅뜬 눈은, 그의 평생을 통틀어 어느 때보다 현명한 빛을 발한다.

게임의 법칙(The Rules of the Game)	109분 | 연소자불가
감 독 장현수 | **각 본** 강제규, 장현수 **출 연** 박중훈, 이경영, 오연수, 하용수 **제 작** 세양필름 | **개 봉** 1994년 9월 17일	

03 고양이를 부탁해

Take Care of My Cat

그녀를 국회로!

인천에 사는 스무 살 태희(배두나)는 일 년 전 여상을 졸업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태희는 누구보다 바쁘다. 그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찜질방 카운터를 보고 전단을 돌린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에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믿는 일을 한다. 뇌성마비 시인이 불러주는 시를 타자로 종이에 옮기고, 여객터미널 사람들을 바라보며 외항선 타는 꿈을 꾼다. 하늘로도 바다로도 바깥세상과 통하는 도시, 인천에 살고 있지만 그녀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른다. 한편 태희는 고교 시절 친구들이 서로를 잊지 않도록 동분서주한다. 갓 세상 속으로 흩어진 친구들의 작은 관제탑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부를 챙기고 도움을 요청받으면 달려간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태희가 시간을 죽이고 있다고 말한다. 태희가 지닌 교감과 연민의 특별한 재능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철저히 무시된다. 증권회사에 취직한 친구 혜주(이요원)조차 충고한다. "넌 언제까지 도우미로 지낼 거니? 너 그렇게 남들 부탁만

들어주고 살다간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한다." 하지만 눈 수술을 받은 날 정작 혜주가 불러내는 사람도 태희다.

〈고양이를 부탁해〉에는 태희가 만두를 먹는 장면이 두 차례 나온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영이 연락을 끊자, 태희는 친구의 집을 찾아간다. 웅크리면 고양이처럼 보드랍고 작은 태희가 친구의 집을 찾아 성큼성큼 걸어갈 때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건강하고 늘씬한 다리를 갖고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 얽히고설킨 가난한 동네의 골목을 헤매다 도착한 초라한 집에 지영은 없다. 방 저쪽에는 몸져누운 할아버지가 보이고 처음 찾아온 손녀 친구가 못내 반가운 할머니는 만두를 내온다. 지켜 앉아 식은 만두를 일일이 집어주는 할머니의 손길을 태희는 사양하지 못한다. 입 안 만두를 미처 삼키지 못한 채 또 한 개의 만두를 받아 쥔 그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양 온 힘을 다해 만두를 꾸역꾸역 먹는다. 소녀의 목을 메게 하는 덩어리가 만두인지, 친구를 향한 애잔한 정인지 분간할 수 없다. 두번째 만두는 태희가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할 즈음 등장한다. 조부모의 사고사 때문에 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지영의 출소를 기다리며, 태희는 깊은 상념에 빠진다. 식구 중 노는 건 너뿐이라며 만두 심부름을 시키는 오빠에게 그녀는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지만 "그게 노는 거 아니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만두 가게에서 태희는 식구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거리에 선 채로 따뜻한 만두 하나를 홀로 천천히 맛본다. '나의 집은 어디인가?' 곰곰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는 얼마 후 짐을 단단히 꾸린다.

배두나의 태희는, 한국영화를 통틀어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일 것이다. 호의와 배려는 이 인물의 천품이다. 태희는 버스 안에서 행상이 내미는 자질구레한 물



건을 꼬박꼬박 열심히 들여다보고, 미안마 노동자들의 데이트 신청에 즐거워한다. 텅 빈 얼굴로 거리를 헤매는 거지 여인과 마주친 날, 소녀는 중얼거린다. "궁금해서 따라가보고 싶어. 매일 뭘 하면서 지내는지." 절망의 차가운 바닥에 다다른 친구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을 찾아낼 줄 아는 희귀한 재능도 그녀의 것이다. "나는 니가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였다고 해도 네 편이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난 너 믿어." 이런 말은, 아무리 가혹한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한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불씨다.

영화의 최종 편집본에서 빠진 한 장면에서 태희는 진지하게 묻는다. "나 정치인이 되는 게 어떨까?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이런 대사를 진심으로 공감하며 듣게 만드는 인물은 흔치 않다.

고양이를 부탁해(Take Care of My Cat) | 112분 | 12세관람가

감 독 정재은 | **각 본** 정재은, 박지성 | **각 색** 김현정, 이언희
출 연 배두나, 이요원, 옥지영, 이은실
제 작 마술피리 | **개 봉** 2001년 10월 12일

04 괴물
The Host

배고픈 아이를 위한 기도

괴물에게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그 애가, 현서(고아성)가 살아 있다! 그러나 비통한 눈물을 닦아내기 무섭게 다른 공포가 가족들을 목 조른다. "현서가 거기서 굶은 게 며칠째지?" 고모 남주(배두나)가 다급히 묻자, 둔한 아빠 강두(송강호)가 그제야 비명을 지른다. "뭘 먹지? 거기서?"

가상 생물체가 나오는 영화 〈괴물〉은 넓은 의미의 판타지 장르에 속한다. 하지만 〈괴물〉의 극중 세계(diegesis) 안에서 유일한 판타지 신은, 현서를 구하러 나선 가족들이 끼니를 때우는 대목에 등장한다. 괴물의 둥지를 찾아 하수구를 수색하다 지친 박희봉(변희봉)과 강두, 남주, 남일(박해일)은 폐쇄된 한강 둔치 매점에 숨어든다. 희봉은 모자란 끓는 물을 네 그릇의 컵라면에 알뜰히 붓는다.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식탁 앞에 '식구'라 불리는 이들이 둘러앉는다. 허름한 밥상만 조명을 받아 빛나고 지친 사람들은 말이 없다. 고흐의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의 구도다. 면발이 익기를 기다리는 몇 분의 시간. 탈진한 채 컵라면 뚜껑 위로 고개를 내리깐 박씨 가족의 모습은,

흡사 경건한 기도의 한때처럼 보인다. 네 식구 중 제일 뒤늦게 젓가락을 드는 것은 평소 먹성 좋은 강두다. 아마도 그는 라면 뚜껑을 바라보며 딸의 휴대전화를 새로 사주기 위해 거스름돈을 모았던 컵라면 용기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조금만 일찍 새 전화를 사주었더라면! 그때 남주와 강두 사이에서 현서가 낮잠에서라도 깨나듯 스르륵 일어나 앉는다. 그리고 굵직한 김밥을 한 입 베어 문다. 식구들은 놀란 기색이 없고 카메라도 태연히 자리를 지킨다. 물끄러미 딸을 보던 강두가 먼저 삶은 계란에 소금을 찍어 건넨다. 고모는 조카의 보드라운 뺨을 쓰다듬고 삼촌은 껍질 벗긴 소시지를 내민다. 할아버지는 만두를 젓가락으로 집어 현서의 입으로 나른다. 그동안 딸이 좋아할 만한 다른 먹을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강두는 복숭아 통조림을 집어든다.

이 무언극을 통해 봉준호 감독은 굶주린 아이를 두고 허기를 채워야 하는 어른들의 체할 듯한 죄책감과 슬픔을 그린다. 라면과 김밥, 만두와 소시지를 삼키며 가족은 그 음식물이 현서의 목과 위장을 타고 넘어가는 감각을 상상하고 있다. 만화식으로 말해서 이 장면에서 현서는 네 식구의 머리 위로 떠오른 말과 생각의 풍선 속에 존재한다. 컷이 이루어지고 나면 영화는 곧장 현실의 배고픈 현서에게 돌아간다. 괴물의 둥지에 웅크린 소녀는 낙숫물을 찍어 입술을 적신다. 납치되기 전 현서가 마지막으로 맛본 음식이 맥주였다는 사실은 특별히 불길하고 잔인한 설정이다. 지금 소녀는 어쩌면 영원히 다시 맛보지 못할 성년의 한 모금을 애타게 갈증내고 있기 때문이다.

〈괴물〉은 실패한 구조담이다. 강두는 끝내 현서를 배불리 먹이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관객에게 해결의 안도감을 남기는 까닭은, 강두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다른 아이를 얻기 때문이다. 괴



물의 식도 안에서 죽은 딸이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던 그 아이, 세주는 배고픈 자에게 끼니를 나누어주는 공동체의 관용을 대변하는 관행, '서리'로 연명하며 살아온 떠돌이 소년이다(영화 속 박희봉의 회상에 따르면 강두 역시 서리로 배를 채우며 자랐고 그 탓에 단백질 부족으로 머리가 나빠졌다). 영화 전반부에서 괴물이 한강 둔치를 휩쓸었을 때도 강두는 딸 대신 엉뚱한 여자애를 끌고 도망쳤다. 반면, 주인공 박씨 가족들은 현서라는 고리를 빼고 나면 서로의 관계를 설명할 단서가 별로 남지 않는 집단이다. 〈괴물〉에서 봉준호 감독이 관심을 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리와 우연한 손잡음으로 연결된 사회적 가족이다. 허기를 잊기 위해 현서가 먹고 싶은 걸 물었을 때 세주는 읊었다. "바나나 우유, 천하장사 소시지, 계란, 핫도그……." 우리에게 필요한 만찬은 한강 둔치 초라한 매점 안에 다 있다.

괴물(The Host) | 119분 | 12세관람가

감 독 봉준호 | **각 본** 봉준호, 하준원, 백철현 | **각 색** 주별
출 연 송강호, 변희봉, 박해일, 배두나, 고아성
제 작 영화사 청어람㈜ | **개 봉** 2006년 7월 27일

05 기쁜 우리 젊은 날

Our Joyful Young Days

아버진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짝짓기를 계기로 탄생하는 집단이 가족임에도, 가족이 있는 풍경과 연애가 있는 풍경은 오이와 당근처럼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 연애는 열정과 성애의 세계고, 가족 관계는 관성과 양육의 공간이기 때문일까. 젊은이의 로맨스를 소재로 삼는 한국영화나 드라마도 가족의 존재를 편의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적잖다. 하긴, 영화 안팎을 넘어 사람들은 연인 혹은 배우자의 가족과 만나는 순간 자신의 1/2인 줄만 알았던 인간이, 실은 낯선 집단의 1/N이었다는 사실에 위화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사랑 때문에 살고도 싶고 죽고도 싶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쁜 우리 젊은 날〉과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혜린(황신혜)을 향한 영민(안성기)의 독실한 사랑과 더불어 배창호 감독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을 특별한 멜로드라마로 만드는 요소는 영민과 그 홀아버지(최불암)의 특수한 관계다. 복종이건 저항이건 '권력'이 개재된 한국영화 속 대부분의 부자父子 관계와 달리, 영민 부자는 마치 모녀처럼 동거한다(이른바 '결손' 가정은 바로 그 결핍 때문에 유연

하게 기능하기도 한다). 영민은 가장 내밀한 감정마저 아버지에게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나아가 아버지 친구들의 참견도 달게 받는다. 영민이 혜린을 향한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처음 아는 사람은 당사자 혜린이 아니라 아버지다. 엄마에게 용감히 구애했다는 아버지의 무용담을 본받아 드디어 영민은 혜린에게 데이트를 청한다. 아버지에게 빌린 손수건을 양복 주머니에 꽂고 감연히 집을 나선다. 2년 전 자신이 나온 연극을 구경 온 그녀를 처음 보았노라고 남자는 말문을 연다. 혜린은 환한 목소리로 대뜸 떠올린다. "아, 그 대사 잊어버렸던 분? 그래서 공연이 중단됐었죠?" 그래도 영민은 준비된 말을 꺼낸다.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맞은편의 아름다운 천사가 까르르 웃는다. 영민은 어설프게 따라 웃는다.

그날 밤 내복 바람으로 잠 못 이루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만취한 아들을 맞이한다. "돈은 모자라지 않았니? 얘, 그 여학생이 뭐라던?" 영민은 세면대에 위액을 게워낸다. "제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인대요." "그거, 잘됐구나." 문득 아들이 묻는다. "그런데, 왜 그 아가씨가 절 보고 깔깔 웃지요?" 등을 두드려주던 아버지가 씁쓸함을 누르며 나직이 답한다. "그야, 널 좋아해서겠지." 방이 하나뿐인 집인 듯, 아들의 침대는 거실에 놓여 있다. 때는 겨울, 창문에는 방풍용 테이프가 붙어 있다. 아들이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운 후에도, 카메라는 자리를 뜨지 않고 어두운 집 안을 지켜본다. 노인은 수도꼭지를 마저 잠그고 침대로 다가가 천천히 아들의 넥타이와 안경을 벗겨준다(이 영화에서 안경을 이용한 안성기의 연기는 탁월하다). 그리고 난로를 열어 불기운이 넉넉한지 살핀 다음, 화면 오른쪽 귀퉁이로 터덜터덜 사라진다. 아버지는 아들의 쓰라린 오늘이 언젠가 '기쁜 젊은 날'로 기억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0년대 관객들은



허진호의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에서 부자간에 일어나는 유사한 교감의 순간을 만나게 된다.

〈기쁜 우리 젊은 날〉에서 영민 아버지의 모델은 배창호 감독의 실제 부친이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영민과 배창호 감독이 사랑에 관해 유보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제목과 달리, 이 영화에 '기쁜' 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시간이 흐른 후, 영민은 혼을 바쳐 사랑한 여인을 여의고, 그녀가 남긴 딸아이와 오래전 그녀와 앉았던 벤치에 앉아 나란히 햇볕을 쬔다. 영민의 아버지에게도 그런 오후가 있었으리라. 〈기쁜 우리 젊은 날〉은 고독한 사랑의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기쁜 우리 젊은 날(Our Joyful Young Days) | 130분 | 중학생가

감 독 배창호 | **각 본** 배창호, 이명세
출 연 안성기, 황신혜, 최불암, 전무송
제 작 태흥영화㈜ | **개 봉** 1987년 5월 2일

09 달콤한 인생
A Bittersweet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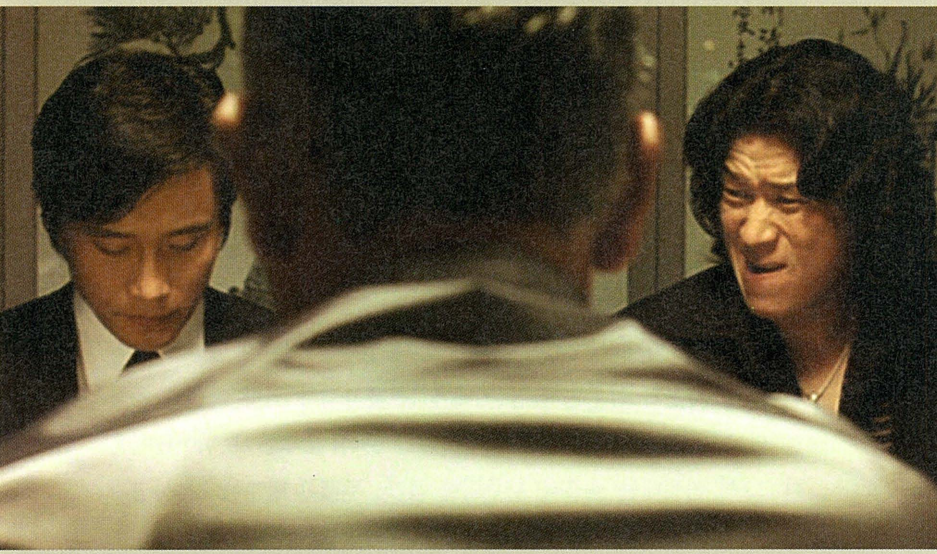
이 새끼, 끝까지 멋있으려고 하네

우리가 김선우(이병헌)를 처음 소개 받는 장소는 그의 일터다. 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 선우는 자신이 관리하는 호텔 바 '달콤한 인생'에서 생크림이 얹어진 초콜릿 무스를 음미하고 있다.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이 장면에서 선우가 먹는 음식이 스테이크였다고 한다. "선우라는 인물을 만들어가다 보니 고기를 질겅질겅 뜯을 성싶지가 않더라"고 김지운 감독은 메뉴가 변경된 까닭을 설명한다. 선우는 피와 욕설로 질척이는 조직 폭력의 세계에서 필사적으로 스타일을 지탱하는 청년이다. 스카이라운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세련된 자태는 그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신기루다. 그러나 달콤함과 부드러움은, 싸움꾼인 선우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 남자는 달콤함에 대한 탐닉을 미각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선우가 티스푼으로 떠먹는 초콜릿 무스는 무절제의 기호와 같은 음식이다(진한 초콜릿의 맛은 오늘날 성인들에게 아련한 죄책감을 자아낸다). 생활의 온기가 결핍된 선우의 썰렁한 거처를 돌아보아도 제법 살림살이가 갖춰진 코너는 주방뿐이다. 영화가 중반에 이르러 운명이 반전되기 전

까지 선우는 에스프레소, 껌, 오뎅, 딤섬 등을 연신 입에 넣고 우물거린다. 선우의 식성은 〈오션스 일레븐〉 시리즈의 러스티 라이언(브래드 피트)을 강렬히 연상시키는데, 러스티는 구순기 아기처럼 막대사탕, 아이스크림, 스낵을 입에서 떼지 않는 프로 범죄자다.

이른바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우의 취향은 표가 난다. 호텔 룸살롱의 첫 액션 신에서 선우는 드잡이는 전혀 없이 높은 위치로 뛰어올라가 민첩한 발차기만으로 깡패들을 제압한다. 취객들을 바라보는 선우의 눈빛은 적의보다 경멸에 가깝다. 그는 거의 혐오스런 상대들과 신체 접촉을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 무례와 불결함에 대한 선우의 생래적 혐오감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장면은 보스 강 사장(김영철)과 마주한 저녁 식사 신이다. 순서대로 요리가 나오는 고급 한식집. 카메라는 전복 접시를 든 종업원을 뒤따라 별실로 들어간다. 강 사장과 선우는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과 식탁 예절로 음식을 맛보고 있다. 이때 선우의 라이벌인 문석(김뢰하)이 뛰어들어온다. 그의 씩씩대는 호흡과 부주의한 몸짓, 무례한 말투는 강 사장과 선우가 그럴듯하게 형성해놓은 공기를 망쳐버린다. 자기 앞 접시로 문석의 젓가락이 함부로 침범해 들어올 때 선우의 내리깐 눈썹과 입은 미세하게, 그러나 또렷이 일그러진다. 카메라가 위치를 바꾸면, 권위를 표상하는 강 사장의 뒷덜미는 선우와 문석을 화면 양쪽으로 갈라놓는다. 나중에 문석이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 선우의 옷을 붙들자, 선우는 검불이라도 붙은 듯 옷깃부터 추스르며 문석을 내친다.

조역인 백 사장(황정민)은 선우와 더불어 이 영화에서 더러움에 질색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다. 뭔가 마뜩치 않아 전화 수화기로 부하를 두들겨 팬 그는 피가 튄 양손을 활짝 벌린 채 아무것도 만지려 들지 않는다. 〈달콤한 인생〉에서 육체적 훼손의 이미지는 '오



염'에 가깝다. 문석이 선우를 증오하는 이유도 숙고해보면 조직 안에서의 권력 다툼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비위는 고상한 척하는 선우를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두 남자의 반목은 일종의 생리현상이며 취향의 전쟁이다. 얼마 후 선우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에 성공한 문석은 라이벌을 고문하면서 비웃는다. "이 새끼 끝까지 멋있으려고 하네."

마음을 흔드는 보스의 여자 희수(신민아)는 선우에게 묻는다. "아저씨 해결사죠?" 음식을 입에 넣던 선우는 서둘러 부정한다. "그때 명함 드렸잖아요. 저 호텔에서 일해요." "그래도 하는 일은 해결사죠?"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물론,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파괴된다.

달콤한 인생(A Bittersweet Life)	120분 | 18세관람가
감 독 김지운 | **각 본** 김지운 **출 연** 이병헌, 김영철, 신민아, 김뢰하 **제 작** 영화사 봄 | **개 봉** 2005년 4월 1일	

07 마부
A Coachman

수레바퀴와 함께 사라지다

〈마부〉는 서울 거리에 마차와 자동차가 나란히 달렸던 과도기의 이야기다. 모진 노동에 뼈가 불거진 말들은 자동차의 표독스런 경적 소리에 겁먹어 앞발을 치켜든다. 그들이 모는 말과 닮은 늙은 마부들은 밥벌이의 동반자를 가까스로 다독인다. 손님은 적지만 마주(馬主)에게 빌린 말 한 필은 여전히 마부들의 끼니고 희망이다. 식민지 수탈과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 사내들에겐 최악을 맛본 자의 무뚝뚝한 낙천성이 있다. 때는 적어도 '관습법'에 따라 가난한 노동자들이 부자 고용주에게 막걸리 값을 요구할 수 있던 시대다.

마부 하춘삼(김승호)의 아들 수업(신영균)은 아버지를 해고하려는 사장을 찾아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게 사회생활 아닐까요?"라고 당당히 따져 묻는다. 감격한 당대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오늘날 이런 대사를 쓰기는 쉽지 않을 게다.

아내를 여의고 홀몸으로 사남매를 길러낸 마부 하춘삼은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수입은 날로 줄어들고 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이웃(김희갑)은 매일 빚 독촉이다. 그래도 춘삼은, 맏아들 수업

이 네번째 도전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해 가운을 역전시킬 거라는 희망에 의지한다.

하춘삼의 꿈은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자식들이 모두 그의 꿈에 기꺼이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고시 공부를 명목으로 노동과 가사를 면제받은 장남 수업은 집안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바늘방석이다. 불안하고 미안해 "내일부터 지게라도 지고 나서겠다"고 해보지만, 춘삼은 번번이 아들의 어깨를 눌러 주저앉힌다. 한편 아버지의 관심 변두리에 있는 막내아들은 "날 좀 봐달라"는 투의 비행을 저지르고 다닌다. 그러나 이 가족 멜로드라마에서 제일 긴 그림자를 늘어뜨리는 인물은 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는, 춘삼의 맏딸 옥례다(가수 김추자가 부른 〈마부〉 주제가도 귀 기울여보면 딸의 노래다). 옥례는 영화 속에 일찌감치 등장한다. 좀도둑질하고 도망쳐 온 막내아들이 초라한 대문을 열면, 그녀가 마당에서 여물을 썰고 있다. 즐거운 친정나들이가 아니라 남편의 폭행과 천대를 못 이겨 도망쳐 온 참이다. 난봉꾼 남편의 주먹질을 피해 온 친정에서조차 일손을 놓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옥례다. 춘삼은 남편에게 쫓겨 온 딸 모습에 성부터 낸다. 그리고 매 맞은 흉터가 아직 선명한 딸을, 다른 여자까지 안방에 끌어들인 사위에게 기어이 데려다놓는다. "넌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해"라는 눈물겨운 호통이 딸에게 저주인 줄 미처 모른 채.

옥례는 하씨 집안의 맏자식이지만 가족의 희망과 계획을 공유하지 못한다. 그녀가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눈에 띄지 않는 것뿐이다.

남편의 애인한테 밥상까지 차려주며 버티던 옥례는 결국 뛰쳐나온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억지로 뽑아내려는 남편을 물어뜯은 직후다. 여인은 그길로 어머니 산소가 있는 공동묘지 꼭대기에



오른다. 그토록 소중한 반지는 어머니의 유품이었을까? 여인은 봉분을 껴안고 흐느끼지만, 이내 툭툭 털고 일어서 잡초를 뽑기 시작한다. 슬픔을 사치로 여기는, 그 무덤덤한 동작이 더 서럽다. 갈 곳 없는 옥례는 다시 친정집 골목에서 아버지를 기다린다. 딸에게 다가가는 춘삼의 주관적 시점 숏과 배경음악은, 공포영화를 방불케 한다. 낙망한 아버지는 경솔하게 넋두리한다. "쫓겨나려거든 차라리 뒈져라. 저 병신 안 잡아가고 귀신은 뭣 하지?" 마침 둘째 딸 옥희(엄앵란)는 부잣집 아들을 유혹하러 나서던 참이다. 옥례를 위로하던 동생은 그날따라 언니 반지가 자꾸만 눈에 밟힌다. "언니, 나 오늘 애인 만나는데 하루만 빌려줘." 남편을 깨물면서까지 지켰던 그 반지를, 여인은 선선히 동생의 손에 끼워준다. 그리고 그날 밤 한강에 투신한다. 비보를 접한 하춘삼은 반찬으로 얻어왔던 동태를 눈 덮인 마당에 떨구고 달려나간다. 언 땅에 버려진 마른 생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카메라는 생각하는 듯하다. 이런 날씨의 한강물은 칼날 같았으리라고. 삶에 한 올 미련이 있었던들 그 물에 몸을 던지지는 못했으리라고.

옥례가 익사한 날 장남 수업은 고등고시를 치른다. 얼마 후 하춘삼의 가족은 합격자 발표 벽보 앞에서 행복하게 포옹을 나누지만 새로운 가족사진 속에 말 못 하는 딸 옥례는 없다.

경제적 격변기 속에서 계층 상승의 고개를 허덕허덕 넘어오다가 낙오되거나 희생된 식구를 가진 집이 비단 마부네 가족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마부(A Coachman)	97분
감 독 강대진 | **각 본** 임희재 **출 연** 김승호, 신영균, 황정순, 조미령 **제 작** 화성영화주식회사 | **개 봉** 1961년 2월	

08

밀양

Secret Sunshine

항복의 너털웃음

〈밀양〉에서 신애(전도연)가 겪는 수난은 그녀의 첫번째 멍에도 마지막 멍에도 아니다. 영화 안에서 신애는 남겨진 유일한 가족인 어린 아들을 잃는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기적처럼 신앙에 의지해 일어서지만 잔인하게도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닥친다. 하지만 관객은 스쳐가는 암시를 통해 신애가 과거에 입은 내상들도 짐작할 수 있다. 착란상태에 빠진 신애는 중얼중얼 피아니스트의 꿈을 억압했던 아버지를 원망하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옮긴 채 죽어버린 남편을 욕한다.

〈밀양〉이 우리의 눈길을 오래 붙드는 것은, 유괴라는 뜨거운 범죄를 스토리의 뇌관으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아니라 인물이 영화의 심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신애는 '자식 잃은 어머니'라는 처지 하나로 설명되는 캐릭터가 아니다. 오히려 성격에 기인한 비극을 맞이하는 고전적인 인물에 속한다. 신애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그녀가 삶을 대하는 고유한 태도와 가냘프지만 질기게 연결되어 있다. 신애는 집요하고 야심적인 여인이다. 신애에겐 강렬한 인생

의 이미지가 있다. 그녀는 더 이상 훼손되거나 간섭 받지 않은 채, 원하는 모습으로 타인의 눈에 비춰지며 살고자 한다. 우리는 그녀가 좌절한 예술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객지에서 삶을 재건하려는 계획은, 잘 풀리지 않는 그림을 중도에 뜯어내고 백지에 다시 스케치를 시작하고 싶은 화가의 욕구에 비할 만하다. 아는 이 없는 도시 밀양에 온 신애는 스스로 상상한 과거를 이웃에게 퍼뜨린다. 넉넉한 유산과 교양, 각별했던 남편과의 애정을 과시한다. 신애가 속이고 싶은 사람은 타인만이 아니다. 집을 찾아온 동생이 매형의 불륜을 언급하자 신애는 잘라 말한다.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야. 애아빠는 나랑 준이만 사랑했어."

모든 노력을 통해 신애가 '밀양'으로부터 기대하는 반향은 부러움 섞인 호감이다. 인생의 3막을 위해 신애가 세심히 준비한 포즈는 유괴범의 협박전화가 걸려온 밤 와르르 무너진다. 이 대목에서 이창동 감독은 조금 잔인하다. 범인은 돈 많은 척하는 신애의 허세를 믿고 아들을 납치했지만 실제로 신애에겐 범인이 요구하는 현금이 없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보험금은 남편 사업하다 진 빚 갚고, 여기 학원 얻고, 인테리어 하면서 거의 다 쓰고……." 신애는 시시콜콜 비굴하게 실토한다. 아이는 차갑게 식은 시체로 돌아온다. 집요한 신애는 죽음 같은 고통을 비집고 빛이 새어 들어오는 구멍을 찾아낸다. 과거를 무화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교회가 그것이다. 긍지 높은 그녀가 인생의 4막에서 세운 목표는 인지상정을 극복한 우월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면회 가서 만난 범인은 자신도 신에게 귀의했다며 성스러운 은혜를 베풀 권력을 박탈해버린다. 하나님의 빼어난 어린 양으로 '들림'을 받으려던 계획이 좌절되자 신애에게 남은 길은 신과 대결하는 것뿐이다. 부러 계명을 거역하여 이웃의 물건을 훔치



고, 독실한 장로를 유혹하고, 부흥회를 난장판으로 만든다. 끝내는 하늘에 "똑똑히 보라"고 오기를 부리며 손목을 긋는다. 하지만 다음 순간 우리는 길거리에 뛰쳐나간 신애의 어린아이 같은 호소를 듣는다. "살려주세요." 오랜 시간 그녀가 온갖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외쳐온 한마디는 바로 그것이었다. 삶에서 미학을 추구하는 신애의 고질은, 그녀를 살아 있는 이들 곁에도 죽은 이들 곁에도 머물기 힘들게 만든다. 결국 신애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는 그녀를 편애하는 신이나 동경하는 이웃이 아니라, 친절을 베풀다가도 뒷말을 하는 이웃과, 호감을 사려고 부지런을 떨지만 도움은 되지 않는 남자다. 승자는 의상실 로망스의 사장과 카센터 사장 종찬(송강호)이며, 소도시 밀양이며, 땅 위의 현실이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신애가 의상실 주인아주머니와 재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그녀가 처음 그 사실에 수긍하는 순간이다. 넉살 좋게 환영하던 이웃집 여인은 짝짝이로 잘린 신애의 머리에 놀라 실언을 한다. "오매오매 어쩌까, 미쳤는갑다." 실수를 깨달은 여자가 입을 가리며 열없게 웃고 신애가 피식 웃음으로 화답한다. 그토록 필사적으로 물고 있던 끈을 신애의 어금니가 놓는 순간이다. "삶의 중요한 결정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내려져 있어. 희망을 찾으려거든 여기서 찾아. 응석 부리지 마." 이창동 감독이 냉정하게 속삭인다. 신애는 각성한다. 그러나 마침내 나부끼는 항복의 백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허전하다. 한 여인의 마음속에서 예술가와 소공녀가 사라진 것이다.

밀양(Secret Sunshine)	141분 | 15세관람가
감 독 이창동 | **각 본** 이창동 **출 연** 전도연, 송강호, 조영진, 김영재 **제 작** 파인하우스필름㈜ | **개 봉** 2007년 5월 24일	

09 봄날은 간다

One Fine Spring Day

새벽빛이 데려간 꿈처럼

"마음에 차지 않고 야속해서 괴로운 기분"을 뜻하는 '앙앙불락怏怏不樂'은, 연애의 심경을 꿰뚫는 네 글자다. 사랑에 빠진 이의 시간은, 연인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과 지나간 만남을 이리저리 곱씹는 시간으로 양분된다. 만남을 예비하거나 반추하는 동안 연인들은 그/그녀가 두고 간 것을 증발시키지 않기 위해 몸을 웅크린다. 취향의 안테나는 민감해져, 나와 연인의 사랑에 대해 들어맞는 해석을 제공하거나 위로를 줄 만한 영화와 소설이 귀신같이 눈에 들어온다. 연애와 무관하게 일상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나머지 시간은 그에게 벽돌과 벽돌의 틈을 메우는 시멘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작 연인과 함께하는 동안은 어떠한가. 이별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초조함이 마음의 평온을 위협한다. 연인들은 그래서 가끔 어리둥절해진다. 대체 사랑이 보증한다던 그 완전한 행복의 시간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두 사람의 시계가 초침까지 일치하는 동안 연애는 희열이다. 내가 십 분간 세 번 눈을 마주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도 정확히 세 번 고개를 들어 시선을 던지는 한, 사랑은 향기롭다. 치매에 걸린 상

우의 할머니는, 신혼 무렵 자신만을 사랑했던, 서로 맥박이 일치했던 시기의 남편만 기억하고 나머지 어두운 추억은 지워버린다. 그러나 포도주는 쉽사리 쉬고 일식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법이다.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는, 그 '매직 아워'를 포착한다. 서울의 동시녹음 엔지니어 상우(유지태)는, 강릉 라디오 방송국 PD 은수(이영애)와 함께 소리를 채집하러 다니다 사랑을 시작한다. 어느 봄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와 길가에 쭈그려 앉은 상우는 멀리 있는 연인에게 전화로 묻는다. "은수 씨. 나 그렇게 보고 싶어요?" 택시를 운전하는 친구를 불러낸 상우는 넌지시 떼를 쓴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강릉 산다." 착한 친구는 가볍게 불평한다. "진짜, 멀리도 산다."

밤을 가로질러 달린 택시는, 은수가 쪼그려 앉아 기다리는 새벽의 강원도 해안 도로에 도착한다. 가로등은 아직 총총한데 멀리서 첫닭이 울음을 터뜨린다. 여자는 달려온 남자가 사랑스럽고, 남자는 꿋꿋이 기다려준 여자가 애틋하다. 용의 목을 벤 기사처럼 의기양양하게 차에서 내리는 남자에게 여자가 달려와 갈급한 포옹을 나눈다. 사랑은 그로 말미암아 저지른 '미친 짓'의 기억으로 인해 위대해진다. "무작정 그/그녀에게 가야 한다"는 이 순간의 긴급함은 오직 두 연인에게만 통하는 정언 명제다. 상우의 껑충한 어깨에 조그만 은수가 팔을 걸자 둘의 실루엣은 포개져 한 그루 나무가 된다. 아아, 다시 저들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어질 수만 있다면! 오래전 사랑의 봄날을 통과해버린 관객의 가슴은 견딜 수 없는 질투로 아득해진다.

"좋다!" 새벽 길 위에서 상우는 황홀하게 탄식하고 은수도 동의한다. 다만 남자는 그 시간이 영원하리라 믿고, 여자는 그것이 지속되지 않을 것을 안다. "술 먹으니까 멋있다"고 칭찬한 은수는 계절



이 바뀌자 "또 술 먹을 거지?"라고 타박한다. 한쪽은 3분마다 사랑을 확인하길 원하고 상대는 4분마다 확인하면 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균열은 일어난다. 사랑 이외 다른 일을 하는 시간들이 박탈당했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영웅적 행위'는 '미친 짓'으로 돌아간다. 티 없이 행복했던 어느 오후 은수가 흥얼대는 〈사랑의 기쁨〉을 상우는 몰래 녹음했다. 그녀의 허밍에 묻힌 그 노랫말은 이르기를,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그이는 새벽빛에 스러지는 꿈처럼 떠났네. 그러나 심금에 남은 말, 내 사랑은 날 사랑하네."

봄날은 간다(One Fine Spring Day) | 113분 | 15세관람가

감 독 허진호 | **각 본** 류장하, 이숙연, 신준호, 허진호
출 연 유지태, 이영애, 백성희, 박인환
제 작 ㈜싸이더스, 쇼치쿠 컴퍼니 어플로즈 픽쳐스 | **개 봉** 2001년 10월 12일

010 빈집
3-Iron

지붕도 없이, 법도 없이

태석(재희)은 주소가 없다. 빈집을 골라 문을 따고 들어가 밥을 먹고 몸을 씻고 잠을 잔다. 야무진 손끝을 가진 이 청년은 주인 없는 집의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하고 마른 화초에 물을 주고 때 묻은 옷가지를 빨래판에 빤다. 숨진 독거노인의 시신마저 공들여 염한다. 더럽혀진 것, 죽은 것, 고장 난 것을 보살피는 노동을 통해 태석은 고작 하룻밤 머무른 집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 그는 어찌 보면 대담한 투사다. 태석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집이 인간 살림의 요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되고 급기야 집이 거꾸로 인간을 소유하는 현실을 겨냥한 환상적인 역공이다.

영화 〈빈집〉에 나오는 여섯 채의 집은 그대로 영화의 장章을 이룬다. 영화 속에서 태석이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간 두번째 집인 평창동의 화려한 저택은 '빈집'처럼 보였지만 사실 빈집이 아니다. 거기에는 한 여자가 구석에 웅크려 숨죽여 울고 있다. 그녀는 남편의 가학적인 소유욕에 지쳐 있다. 침입자의 기묘한 행동거지를 오랫동안 가만히 지켜보던 그녀, 선화(이승연)는 태석의 동행이 되기로 결정한

다. 시종 대화가 없는 두 남녀는 집의 감식자가 되어, 주인이 비운 집들을 전전하고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영화 속의 다섯번째 집인 축대 높은 한옥에 들어선 태석과 선화는 할 일이 없다고 느낀다. 그 집은 고장 나거나 상한 데가 없다. 세심하게 건사되고 외부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공간에서 둘은 그저 차를 마시고 휴식한다. 그리고 탁자 밑으로 서로의 발을 포갠다. 벽에 걸린 집주인 부부의 사진이 태석과 선화를 잡은 프레임에 온화하게 끼어든다.

김기덕 감독은 〈빈집〉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밀도다. 그 밀도가 가장 완벽한 곳은 한옥이다. 한옥은 꽉 찬 듯하지만 공기가 살아 있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한옥이 무조건 '해방'을 약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옥이 김기덕 감독과 지금의 우리에게 매혹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한옥이 우리 시대에 결핍된, 언어로 붙잡기 힘든 가치를 견고한 볼륨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선화와 태석은 독거노인의 시신을 거두었다가 유족들의 신고로 살인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석을 구속하고 선화를 남편에게 돌려보낸다. 둘은 변명하지 않고 이것을 수련의 기회로 삼는다. 헤어진 채로 둘은 한층 어려운 과제—비어 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는 법—에 도전한다. 교도소의 태석이 사람들의 180도 시야 밖에서 움직이는 기교를 단련하는 동안, 선화는 어디서든 자아를 지키는 법을 익힌다. 먼저 한옥을 다시 찾는 건 여자다. 어리둥절한 주인에게 희미한 목례를 보낸 선화는 천연스레 대청마루의 긴 의자에 올라 단잠에 빠진다. 집이 특별한 건 오직 거기 사는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선화의 잠이 혼곤하고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한 선량한 주인 부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둔다. 하나의 선의가 선



부른 제2의 선의와 만날 때 뜻하지 않은 왜곡된 결과를 낼 수 있음을 현명한 부부는 이해하는 듯하다. 하긴, 그들은 애초에 대문도 걸지 않았다. 그건 이 집의 '재산'이 외부자가 들어온다고 훼손되거나 도둑이 든다고 훔쳐갈 수 없는 무엇이기 때문일 것이다. 태석도 얼마 후 같은 자리를 찾아와 휴식한다.

마침내 재회한 태석과 선화가 체중계 위에 올라섰을 때 바늘은 영점을 가리킨다. 〈빈집〉은 육신을 지우지 않으면 행복하기 힘들 거라고 내심으로 여기는 슬픈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 속 낙원 같은 한옥에서 주인공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것뿐이었다. 위대한 영화가 흔히 그렇듯 〈빈집〉에서 구체적 사물과 보편적 관념은 구별되지 않는다. 〈빈집〉은 '비움'을 그리워하는 영화다.

빈집(3-Iron) | 88분 | 15세관람가

감 독 김기덕 | **각 본** 김기덕
출 연 이승연, 재희, 권혁호, 최정호
제 작 김기덕필름 | **공동제작** 씨네클릭아시아 | **개 봉** 2004년 10월 15일

사랑니

Blossom Again

부재의 깃발이 나부끼다

영화가 시작되면 다짜고짜, 열일곱 살 소년(이태성)과 서른 살 학원 교사(김정은)가 연애에 돌입한다. 왜냐고 구태여 묻는다면, '이석'이라는 소년의 흔치 않은 이름이 그녀의 첫사랑 소년의 이름과 똑같아서다. 게다가 여자의 눈에는 소년의 생김새마저 과거의 연인을 빼닮았다. 논란을 자초하는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리지만 〈사랑니〉는 첫사랑의 위대함을 설교하는 영화도, 미성년자와의 사랑을 용납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는 영화도 아니다. 기실 특정한 연애의 성패는 〈사랑니〉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사랑니〉는 사랑으로 (인물의) 팔자를 고치려 들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발생하고 재발하는 과정의 유형 그 자체가 〈사랑니〉의 내용이다. 이야기가 다소 막연하다면 이렇게 자문해보자. 내가 사귀는 사람들은 어딘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가? 누군가에게 빠져들고 빠져나오는 여정에서 "이곳에 나는 한 번 와본 적이 있다"는 기시감을 느낀 적은? 한 사람이 지닌 사랑의 패턴은, 상대방의 패턴과 만나고 다시 종횡으로 이어지면서 레이스를 떠나간다.

〈사랑니〉는 북적거린다. 이석의 죽은 쌍둥이 형 이수에게 끌렸던 소녀 조인영(정유미)은 이석을 향해 마음을 앓는다. 서른 살 인영은 고교 동창 정우(김영재)와 동거 중이다. 여기에 과거 인영의 첫사랑이었던 이석도 불쑥 나타난다. 〈사랑니〉가 그리는 관계의 원무 가운데 선 사람은, 서른 살 인영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인물을 술래로 가정한, 미처 씌어지지 않은 이야기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덧씌워 그를 사랑하는 두 여자 사이에 선 열일곱의 이석, 이혼 후 인영의 곁에 돌아와 앉은 정우, 이름조차 잊은 척하지만 인영의 추억이 서린 하찮은 물건을 간직해온 서른의 이석. 이들 중 누구라도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한 이야기를 안고 있다.

정지우 감독은 사랑의 순열과 조합을 드러내기 위해 인물은 물론이고 공간과 사물도 동원한다. 〈사랑니〉는 의도적으로 시대와 지역색이 흐릿하게 보이도록 설정했다. 열일곱 살 이석과 인영의 동네는 주택가라기보다 세트장처럼 보이는 서울 근교 신도시에서 촬영되어, 과거인지 현재인지 시제를 가늠하기 어렵다. 서른 살 인영과 정우의 보금자리는 개조된 한옥이다. 역사를 새기지 않는 한국적 공간의 특성을 활용해 묘하게 이야기에 추상성을 불어넣은 셈이다.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에 흩어져 있는 지구본, 교과서, 구두, 꽃 같은 소품들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발산한다. 열일곱의 인영은 이석의 가족이 이사하는 광경을 버스에서 목격하고, 소년의 교실로 달려간다. 하지만 이석은 이미 떠나버린 후다. 겁에 질린 소녀의 시점을 따라 공중을 헤매던 카메라의 시선은 교실 창가에 펄럭이는 한 벌의 흰 교복 와이셔츠에 머문다. 이석의 옷일까? 그럴 리 없다. 하지만 그 순간 인영에게 그 옷은 이석의 부재를 확정하는 깃발이다. 사물이 타전하는 신호는 바라보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

〈사랑니〉는 인물과 공간, 사물의 '이름'을 지우고 나서 드러나는 사랑의 습성을 그린 추상화다. 영화가 그리는 패턴 안에서 인물들은 가역적이다. 주인공 조인영이 가르치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수학이 다루는 물건인 수는 양의 차이가 있을 뿐 동등하다. 시나리오 속 한 장면에서 왜 수학이 좋냐는 질문에 인영은 "문제를 풀게 해줘. 논리적이고 명쾌해. 공정한 게 좋아"라고 말한다. 지극히 평이한 이 대답은 사랑을 다루는 〈사랑니〉의 자세이기도 하다. 영화의 사색은, 어린 인영의 간절한 마지막 대사로 귀결된다. "다시 태어나면 이석이 되고 싶어." 그렇게, 사랑은 생의 가장 고유한 체험이지만 동시에 나와 타인의 경계에 위태로울 때까지 다가가는 모험이다.

사랑니(Blossom Again)	115분 | 15세관람가
감 독 정지우 | **각 본** 정지우, 공미정 **출 연** 김정은, 이태성, 김영재, 정유미 **제 작** 시네마서비스 | **개 봉** 2005년 9월 29일	

12 4인용 식탁

The Uninvited

외면하고 싶은 그녀의 시선

또 한 조組의 가족이 결성되려는 참이다. 결혼이 임박한 정원(박신양)과 희은(유선)은 신접살림을 차릴 아파트를 틈틈이 꾸민다. 마침 집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은 그들의 직업이기도 하다. 정원은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에서 일하고 희은은 조명을 디자인한다. 그즈음 정원은 지하철에서 이상한 광경을 본다. 설핏 잠들었다 종착역에서 깨어 부랴부랴 내린 정원은, 눈을 감고 목을 뒤로 떨군 두 아이가 텅 빈 열차에 실려 멀어져가는 것을 본다. 뉴스는 지하철에서 두 구의 어린이 시체가 발견됐고, 생모가 용의자라는 소식을 전한다.

희은이 아파트에 미리 들여놓은 4인용 식탁은 고급스럽지만 냉랭한 광택을 흘린다. 새집에서 밤샘 작업을 하던 정원은, 미래의 아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식탁에 지하철에서 죽은 두 아이가 축 늘어진 그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4인용 식탁〉의 귀신은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존재함으로써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정원은 집에서 도망 나오지만 어째서인지 아무에게도 공포를 호소하지 않는다. 그도 들은 것이다. 죽은 아이들의 이미지

가, 어린 날 기억 속에 봉인된 열쇠 구멍에 철커덕 들어맞는 소리를. 당장 정원에게 필요한 상대는 그와 같은 것을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원의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의 신도이자 아파트 이웃인 연(전지현)이 그의 부엌을 보고 무심코 말한다. "애들, 방에 눕히셔야 되겠네요." 그녀에겐 깊이 매몰된 타인의 기억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고, 그 힘을 발휘한 결과로 자신의 아기를 잃었다.

영화 도입부에서 희은은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는 말에 얼굴을 찡그린다. 그러나 〈4인용 식탁〉의 가족은, 별수 없이 공포의 요람이다. 생활고 때문에 자식을 유기하는 어머니가 있고, 생계를 위해 아들을 착취하는 아버지가 있다. 오래전 우물 바닥에서 죽은 어머니의 육신을 빨아먹고 살아남은 여자는 출산 후 노이로제에 시달린다. 학대 받는 어린 소년은 가족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이 동반 자살이라고 충심으로 믿는다. 〈4인용 식탁〉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희생자도 등장한다. 연의 아파트 위층에서 고양이 한 마리와 벗 삼아 살던 여자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로움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어딘지 시체 보관실을 연상시키는 금속 재질 엘리베이터에서 연과 마주친 여인은, 고양이의 목소리를 빌려 말을 붙이려고 애교를 부린다. 그녀의 고양이는 아기와 똑같은 소리로 울고, 연은 여자의 비굴한 태도가 싫다. 얼마 후 연은 비 내리는 아파트 단지를 내다보다가 위층으로부터 거꾸로 추락하던 고양이 여인의 부릅뜬 눈동자와 마주친다. 아마 그 순간은 두 이웃이 똑바로 눈을 마주친 최초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4인용 식탁〉은 가족제도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데에 전념하는 영화가 아니다. 다만 가족을 이루려거든, 혈육애와 모성이 역사와 사회를 초월한 주술이며, 가정이 이 세계에 만연한 고독과 잔혹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라는 환상을 버리고 나서



그리 하라고 말한다.

호러라고 부르기 애매한 영화 〈4인용 식탁〉이 두고두고 무섭게 느껴지는 까닭은, 죽음의 방식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죽어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눈 깜짝할 새에 마치 토마토가 으깨지듯 푹푹 스러져간다. 익명의 군중이 규격화된 상자에 나뉘어 사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는, 이처럼 믿기 어렵도록 덧없는 죽음에 어울린다. 추락의 이미지가 비처럼 내리는 이 영화에서 아파트들은 가파른 낭떠러지가 되고 한 무리의 묘비가 된다.

불완전하고 추한 현실과 눈을 맞춰야 제대로 삶의 진도를 나아갈 수 있다고 〈4인용 식탁〉은 충고하지만, 이 영화의 이미지는 그 메시지를 밀쳐내는 모순을 보여준다. 감당할 수 없는 진실도 진실이라고 호소하는 연은, 정작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리는 순간마다 낫에 베인 풀처럼 쉽게 쓰러진다. 그리고 결국은 심연으로 몸을 던져버린다. 그런가 하면 우두커니 4인용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는 정원을 아파트 창밖에서 지켜보는 영화의 마지막 프레임은 고분의 석실처럼 보인다. 생매장을 연상시키는 이 광경은 우리를 겁에 질리게 한다. 그들은 왜 애써 닫은 우물의 뚜껑을 다시 열고 들여다본 것일까? 그들과 그들의 기억은 입구와 출구를 따로 둔 영화 속 정신과의 환자들처럼 서로 만나지 않는 편이 좋은 사이였던 게 아닐까?

4인용 식탁(The Uninvited)	125분 | 15세관람가
감 독 이수연 | **각 본** 이수연 **출 연** 박신양, 전지현, 유선, 김여진 **제 작** 영화사 봄, 싸이더스 HQ | **개 봉** 2003년 8월 8일	

13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I'm a Cyborg, but That's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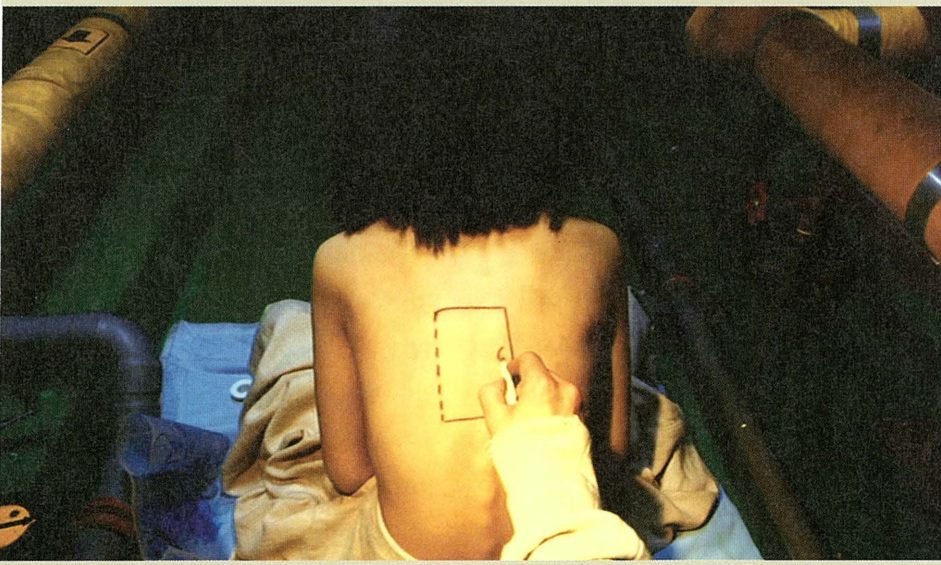
나를 수리해줘, 제발

〈싸이보그지만 괜찮아〉의 영군(임수정)은 이를테면 〈A.I.〉의 '메카(mecha, 유기체가 아닌 기계 종족)' 데이비드(할리 조엘 오스먼트)와 정반대 처지다. 감정을 가진 로봇 데이비드는 필사적으로 인간의 아이가 되고 싶어 하지만, 영군은 자기가 기계의 일족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 중에서도 모든 기계를 이길 수 있는 힘센 '싸이보그'라고 믿는다. 〈A.I.〉에서 데이비드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되고파서 억지로 음식물을 입에 밀어넣다가 고장을 일으킨다. 영군은 그렇게 될까 봐 겁나 밥을 굶고 건전지를 핥는다. 당연히 영양실조에 걸린 앙상한 그녀는 형광등한테 종알거리고 자동판매기와 수다를 떤다.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대화하는 대신 공중전화랑 대화한다. 그리고 라디오 DJ의 복음에 귀 기울인다. "한밤중에 일어나, 냉장고 소리에 귀 기울여보겠어요? 추운 겨울 아침, 밤새 돌았던 보일러 소리를 느껴보겠어요? 이들이 눈물겨운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 그러나 사용설명서도 상표도 없는 '싸이보그' 영군은 자신의 참된 용도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스스로를 쥐라고 믿다가 정신병

원에 끌려간 할머니부터 구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쫓긴다.

영화는 영군이 착란을 일으킨 원인보다 그 결과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그녀가 왜 인간의 정체성을 거부하는가 하는 질문의 답은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일단 관객은 의사의 차트에서 영군이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두 달 동안 길러졌다는 사실을 엿보게 된다("전기선들이 날 먹여 살렸어"). 극중 신세계 병원에 입원한 환자 일동의 다양한 증세가 결국 그렇듯, 영군의 판타지는 어떤 괴물로부터의 도피다. 굳이 정신병동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간사의 많은 행위를 도피로 분류할 수 있다. 취미, 초콜릿, 유머, 아편 그리고 예술의 대다수가 그렇다. 비겁하게 들릴지 몰라도, 도피하지 않고 억압을 날것으로 견뎌내다 보면 면역체계에 악영향이 오는 것도 사실이니까. 할머니의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한 영군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재주나 기억을 도둑질한다고 소문난 일순(정지훈)에게 자신의 동정심을 훔쳐가달라고 부탁한다. 요컨대 무기를 구하는 대신, 이미 소유한 자질을 봉인하는 회피의 방식으로 강해지려고 한다. 그래서 일순이 영군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관객은, 영군이 현실에서 도망쳐 웅크렸던 착란의 방공호에서 다시 연애의 동굴로 도망칠 것을 어렵지 않게 내다볼 수 있다.

〈싸이보그지만 괜찮아〉는 다양하게 해석되는 우화지만, 무엇보다 영군처럼 '도피의 귀재'를 사랑하는 훌륭한 기술을 소개하는 로맨스다. 일순은 영군에게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라"는 지당한 충고를 하지 않는다. 그는 꾸미지 않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가 보는 세계를 같이 보기 시작한다. 의료진이 영군의 단식을 중지시키기 위해 전기쇼크를 흘리고 튜브로 음식물을 주입하자 일순은 큰 난동을 부린다. "안 먹는다고 하잖아!" 현재 상대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순



의 태도를 함축하는 이미지는, 그가 목이 180도 돌아간 싸이보그 영군을 그대로 들어 올려 입 맞추는 장면이다. 입술은 사랑의 기관이자 체내에 음식이 들어가는 관문이다. 성적인 갈증을 해소한 소녀의 입술은 머지않아 음식도 통과시킬 수 있을 듯하다. 일순은 영군의 세계를 부수고 싶지 않은 동시에 그녀가 생존하길 바란다. 그래서 재주를 동원해 소녀의 배터리를 현실과 연결해줄 '탯줄'을 고안한다. 바로 음식의 열량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계장치 '라이스 메가트론'이다. 병원 보일러실에서 일순이 라이스 메가트론을 영군의 몸에 설치하는 장면은 박찬욱 영화를 통틀어 가장 로맨틱한 순간이다. 영군의 등 뒤에 앉은 일순은 침착하게 작업한다. 상체를 탈의한 영군의 등은 톱니처럼 앙상하다. 광부의 그것 같은 탐조등을 이마에 단 일순은 칼로 피부를 절개하고 '문'을 여는 시늉을 한다. 사실은 연필로 조그만 문을 그렸을 뿐이다. 보기보다 사려 깊은 일순은 그 문에 손잡이를 잊지 않고 그려 넣는다. 외마디 신음을 냈던 영군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거기. 가려울 때가 있더라. 오라, 문 여는 데구나." 일순은 먼지를 털어내고 라이스 메가트론을 신중히 넣고 기름을 친다. 누군가 다시 태엽을 감아주길 기다리는 고장 난 인형이 된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는 관객이라면 심장이 뜨거워질지도 모른다.

역시나 영군의 첫술 뜨기는 힘들다. 식당에 온 영군은 메가트론이 작동하지 않을까 봐 겁에 질린다. 일순이 장담한다. "나 기술자야. 내가 고쳐주지." "이번에 괜찮아도 다음에 또 그러면?" 이 대사는 연애를 시작하는 세상의 많은 소녀들이 연인에게 던지는 질문—"지금 네 말을 믿고 사랑했는데, 네가 먼저 사랑을 끝내면 어떡해?"—의 다른 판본이다. "A/S 출장 간다. 보증기간 평생이야." 일순의 보장에 영군과 관객들은 안심한다. 꿀꺽. 일순이 발명한 기계는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남자는 병원 식당에 만장한 동료 환자들의 치하를 받는다. 여자와 남자, 양성이 품는 연애 판타지가 탱크 가득 채워진다.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 좁혀 생각하면 영혼의 동료를 알아보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지혜로운 작가가 고독한 사람들에게 남긴 조언이다. 영군과 일순은 그 교훈에 딱 들어맞는 본보기 커플이다.

싸이보그지만 괜찮아(I'm a Cyborg, but That's OK)	105분 | 12세관람가
감 독 박찬욱 | **각 본** 정서경, 박찬욱 **출 연** 임수정, 정지훈, 오달수, 이영미 **제 작** ㈜모호필름 | **개 봉** 2006년 12월 7일	

14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Untold Scandal

님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아 물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
님은 그예 물을 건너셨네 (公竟渡河)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墮河而死)
가신 님을 어이 할꼬 (當奈公何)

시詩의 생명은 미스터리다. 학창 시절 교실에서 배운 〈공무도하가〉는 그 비밀을 완강히 간직함으로써 우리를 뜻 모를 설움과 매혹에 빠뜨렸다. 물에 쓸려 죽은 '님'이 가리킨다는, 백발의 미친 사내는 무슨 사연으로 술병을 들고 격류에 몸을 던졌을까? 행여나 불우한 사랑이라도 한 것일까? 남편을 눈앞에서 잃고도 여인은 어찌 울음 대신 아름다운 노래로 호곡했을까?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한 장면은 이 오래된 노래를 되살려냈다. 얼어붙은 겨울 호수. 냉혹한 순백의 수평선이 화면을 가른다. 선혈 같은 붉은 치마와 목도리를 두른 여인이 자박자박 걸음을 옮기더니, 주저앉듯 살얼음 밑으로 사라진다. 그녀의 등 뒤에서 "가지 마오" 목 놓을 자는 오직 카메라와 관객



뿐이다. 애초 이재용 감독은 이 장면을 한 컷으로 찍길 원했지만, 현장 사정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숙부인의 뒤를 묵묵히 뒤따른 카메라가 그녀가 가라앉은 얼음구멍에서, 조원이 정표로 준 붉은 목도리가 둥실 떠오를 때까지 눈 떼지 않는 것이 원래 감독의 구상이었다.

이재용 영화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영화가 끝날 즈음 이방으로 홀연 떠난다. 〈정사〉의 서현(이미숙)은 브라질로, 〈순애보〉의 아야(다치바나 미사토)는 알래스카로,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조씨 부인은 중국으로 돛을 올렸다. 〈다세포소녀〉의 소녀들마저 졸업식을 치르고 학교를 벗어났다. 이재용의 히로인 가운데 경계를 넘지 못하는 여인은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숙부인뿐이다. 하지만 청상과부의 몸으로 뒤늦게야 바람둥이 조원(배용준)과 더불어 사랑을 깨우친 숙부인도, 본디 꿈꾼 장소는 중국 연경이었다. 행복했던 한때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부부라 한들 뭐라 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 두 연인이 가야 할 땅은 예상보다 훨씬 먼 이승 너머였다. 소설가 그레이엄 그린은 『사랑의 종말』의 서두에서 인용을 통해 숙부인과 조원처럼 불우한 연인들을 이렇게 애도했다. "인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여러 장소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곳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는 조선 신분사회의 위선이 인물의 행태에 영향을 끼치긴 하나, 기본적으로 환경보다 개인의 고유한 성격이 불행을 초래하는 비극이다. 같은 원작을 각색한 스티븐 프리어즈 감독의 〈위험한 관계〉에서 숙부인에 해당되는 투르벨 후작부인은 실연의 고통을 못 이겨 병사했다. 뒤늦게 자기혐오에 빠진 바람둥이 발몽(존 말코비치)은 무모한 결투로 생을 마감한다. 〈스캔들—조

선남녀상열지사〉에서 순서는 거꾸로다. 연인을 모질게 내친 조원이 숙부인을 사모하던 사내의 칼에 자포자기하듯 숨지고 그 소식이 숙부인에게 전해진다. 이재용 감독은 숙부인의 죽음이 사랑의 패배로 인한 포기가 아니라 주체적 결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순서를 달리했다고 설명한다. 유심한 관객이라면, 조원의 비보를 접한 숙부인이 봉숭아물이 간당간당 남은 손톱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짧은 숏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애인의 진정을 확인한 그녀는, 주저 없이 사랑을 완성할 유일한 방도를 깨닫고 호수로 걸음을 옮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알고 보면 동반 자살이며 잔혹한 방식의 재회다. 게다가 숙부인이 천주교도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쓰라리다. 어쩌면 사랑의 기억에 위로받으며 여생을 살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희연은 사랑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모양이다. 이재용 감독은 확실히 순애보를 믿는 작가다. 그러나 그가 상상하는 사랑의 완결은 언제나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난다. 그는 비관적인 큐피드다.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Untold Scandal) | 123분 | 18세관람가

감 독 이재용 | **각 본** 이재용, 김대우, 김현정 | **각 색** 이재옥, 심광현
출 연 배용준, 이미숙, 전도연, 조현재
제 작 ㈜영화사 봄 | **개 봉** 2003년 10월 2일

15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Driving with My Wife's Lover

라소옥뎐(傳)

내 이름은 라, 소, 옥. 촌스럽달 수도 있고, 개성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이름이죠. 어느 쪽이건 쉽게 잊힐 이름은 아닌데도, 살아오는 동안 시간을 들여 나를 지긋이 바라보아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느긋했어요. 내 안에는 야무지게 꼭꼭 접혀 있는 따스하고 근사한 무엇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필요한 것은 구겨진 종이가 천천히 펴지듯, 내 비밀의 꽃이 기지개를 펼 때까지 참을성 있게 머물러줄 한 사람의 눈길뿐이라는 것도. 새벽시장에서 큰 맘먹고 탄 택시에서 만난 중식 씨(정보석)는 세번째 사거리를 지나기도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아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봤어요. (그것도 백미러로만 보고 말이죠!) 확신은 나를 저돌적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살림을 차렸어요. 결혼식과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둘 다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간섭할 만한 일가붙이도 없었고요. 술집 문을 닫고 나면, 난 불을 켜놓은 채 잠을 청했고,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 찰 무렵 퇴근하는 그이가 스위치를 껐어요. 새벽마다 꿈결에 듣는 '딸깍' 소리는 하루를 개켜 궤짝에 넣고 봉인하는 음향처럼 나를 안

심시켰어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주름과 어긋남이 바로 잡히는 듯했죠. 그러나 내 달콤한 숙면은 길지 않았어요. 중식 씨가 '알아봐준' 여자가 라소옥 혼자가 아녔던 거죠. 동거 1년이 되지 않아 나는 우리 동네 슈퍼 계산원도 야쿠르트 아줌마도 중식 씨를 "자기"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방 장거리 뛰러 간다고 나서서 마냥 무소식인 일도 잦아졌어요. 가게 싱크대에 전국 지도를 붙여놓고 거리를 헤아리는 버릇이 생겼죠. 집에 안 가려는 남의 남편들 구슬러(내 팔자야!) 겨우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종일 그이 전화가 불통일 때면, 벨소리를 기다리다 지쳐 코드에 목을 매 죽었다는 실연한 여자가 이해가 갔어요. 그즈음 눈치가 보였는지 중식 씨가 예의 철학을 설파하더군요. "세상에 불륜이 어디 있어? 사랑이 있을 뿐이지. 섹스랑 사랑은 아무 관계 없어."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따져 뭐 하겠어요? 다르게 생겨먹은 것을. 난 그이랑 달라서 복잡한 건 질색이에요. 그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경영해온 조그마한 술집 이름은 '딱 한 잔'이에요. 장사에 별 뜻 없는 간판이라고 지청구를 듣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내 편 한 사람, 즐겁게 들이켜는 맛난 술 딱 한 잔이면 세상살이 족한 것 아닌가요. 하여간 인간은 목이 졸리는 일에도 익숙해진다더니 저도 겪어보니 그렇대요. 예전엔 중식 씨에 관한 거라면 뾰루지도 알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 알고 싶지 않은 것만 알게 됐어요. 새 여자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라든가, 외박을 계획하며 나가는 아침의 표정 같은 것들. 바보 같다고요? 남의 말이라고 쉽게 하지 마세요. 순애보엔 관심 없어요. 나도 떠날 만한 기운을 차릴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원래 반성이나 후회 같은 건 안 해요. 시간을 옛날로 한 번 더 돌린대도 난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다시 불행해지겠죠.

그날 밤은 평범했어요. 혼자 벽 보고 앉아 술잔 홀짝이던 말라깽이 손님(박광정)이 문 닫을 시간이 넘었는데 일어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럴 땐 내쫓거나 대작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날은 나도 술이 고팠어요. 중식 씨 전화가 또 불통이었거든요. "손님도 뭔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질투로 속 썩는 냄새는 십 리 밖에서도 나는 법이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바람났어요." 마주 앉아 내 속사정 털어놓고 중식 씨를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그 손님 왈 자기는 둘 다 죽이고 오는 길이라대요. 제가 뭐라겠어요? 그냥 둘씩 죽이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했죠. 물론 그땐 둘 중 하나가 내 남잔 줄 몰랐어요. 알았대도 별수 없었겠지만.

나는 노래를 했고 손님은 춤을 췄어요. 켜놓고 잠든 불이 일어나도 그대로 켜져 있었던 새벽마다 입 안을 맴돌던 노래, 한영애의 〈누구 없소〉를 불러젖혔죠.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소.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주." 바로 이 장면이에요. 노래하는 제 등 뒤로 붙어 있는 먹으로 그린 그림 보이나요? 추사 김정희라나 옛날 화가가 섬에 귀양 가서 그린 유명한 그림이래요. 유명한 건 모르겠고, 눈밭에 덩그러니 서 있는 오두막 한 채를 상록수 몇 그루가 지키고 선 품새가 찡해서 길거리에서 샀어요. 말라 갈라진 붓털의 흔적이 내 심장 근처를 살살 간질이더라고요. 이 그림 구석에 찍힌 낙관은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는 뜻이라나.

근데 이 손님이 갑자기 부엌에서 무를 꺼내 반 토막 내더니 밑그림도 없이 슥슥 칼로 새기더군요. 그리고 간장을 찍어 종이에 꼭 눌렀는데, 아! 손님이 손을 떼자 거기엔 웬 쓸쓸하고 곱상한 여자의 초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라소옥이었죠. 스미는 간장 국물에 종이가 울자 나도 그만 울 것 같았어요. 손님이 한탄하대요. "아줌마는 신랑



을 진짜 사랑하나 봐. 나는 마누라 사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놈의 질투 때매 지옥 속을 헤매." 손님과 나는 옷을 벗고 부둥켜안았어요. 깡마른 남자가 새우처럼 몸을 말고 속삭였어요. "흑흑, 복 받으실 거예요." 그때 중식 씨가 별안간 들이닥치대요? 타이밍도 참. 근데 글쎄, 그 인간이 손님을 붙잡고 나랑 어디까지 했냐고 따지지 뭐예요? 그 화상 미웠던 건 여러 번이지만 우스워 보이는 건 그때가 처음이더라고요. 두 남자가 바깥에서 옥신각신하는 데 갑자기 속이 홀가분했어요. 사랑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여자 때문에 속병 앓는 아저씨, 쿨한 척은 혼자 다하다 그 따위 질문이나 하는 사내보다 사랑에 한해서는 내가 몇 백 배 잘난 인간 맞잖아요?

그러고는 1년이 흘렀어요. 어느 손님이 크리스마스이브 마감 시간에 또 "딱 한 병만!"을 외치기에 에라 모르겠다 제 사연을 들려줬죠. 그랬더니 〈처용가〉라는 옛날 노래랑 비슷하다며 주절주절 들려주더라고요. 딴건 모르겠고 이불 밖에 발이 네 개네 뭐네 그 대목만 뚝 잘라 국어 시간에 가르치니 처용 아내가 오죽 기막히겠나 싶어요. 그 여자라고 이불 밑에 서리서리 넣어둔 사연이 없었겠냐고요.

*이 글에는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의 내용과 무관한 필자의 상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Driving with My Wife's Lover)	95분 | 18세관람가
감 독 김태식 | **각 본** 김전한, 김태식 **출 연** 박광정, 정보석, 조은지, 오달수 **제 작** 필름라인 | **개 봉** 2007년 4월 26일	

16

여고괴담

Whispering Corridors

그 소녀, 아직 학교에 있다

학교는 군대와 더불어 한국영화가 소유한 보고寶庫다. 둘은 한국 대중으로부터 "나도 한때 저기 있었다"는 집단 기억을 불러내는 장소인데다가, 이 사회가 내포한 폭력성과 모순의 절묘한 축도이기 때문이다. 〈여고괴담〉 시리즈는 그 잠재력을 정확히 감지하고 발굴한 총명한 기획이었다. 연작의 씨앗에 해당되는 박기형 감독의 〈여고괴담〉은, 기기묘묘한 영감으로 빚어진 속편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와 비교되는 통에 상대적으로 전형적 호러 영화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돌아보면 첫번째 〈여고괴담〉 역시 한국 십대 여성에게 특유한 고통과 정서에 깊은 시선을 던졌다. 이 영화에서 호러적 긴장을 지속해가는 요소는 교사들의 죽음이지만 이는 영화가 전달하려는 드라마에 견주면 부차적인 일화에 불과하다.

〈여고괴담〉의 소녀 귀신은 사실 그리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혼자 빈 교실에 들어가기가 꺼려져 등굣길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보통보다 더 여린 여자아이일 따름이다. 정작 박기형 감독의 〈여고괴담〉에서 소름 끼치는 괴물은 한국 학교가 만들어낸 병적인 행동 유

형이다. 영화에는 '미친개'라는 별명을 지닌 나쁜 교사가 나온다. 그는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소녀들의 머리를 출석부로 때리고 칠판지우개로 얼굴을 후려치며 봉으로 젖가슴을 쿡쿡 찌른다. 그는 무분별한 말과 행동으로 충족되지 않은 사적 욕구의 찌꺼기를 학생들에게 배설한다. '미친개'는 결국 소녀 귀신에게 응징당하는데, 이 장면이 불러일으키는 은근한 통쾌함은, 차를 무기로 여성 운전자를 살해해 대리만족을 얻는 악당을 처단하는 〈데쓰프루프〉의 결말이 촉발하는 말초적 카타르시스에 비할 법하다.

〈여고괴담〉의 시나리오는 시간을 가로지르는 두 쌍의 대칭된 인연으로 짜여 있다. '늙은 여우'와 '미친개'로 통하는 두 교사는 각각 과거와 현재에 학생들을 학대하고 편애한다. 9년 전, 모범생 은영(박은희/이미연)은 무당의 딸이라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진주와 특별한 우정을 맺지만 담임의 회유와 협박으로 진주를 배신하고, 이는 진주의 죽음으로 비화된다. 시간이 흘러 은영이 모교 교사로 부임할 무렵, 같은 비극이 재학생 소영(박진희)과 정숙(윤지혜)에게 반복된다. 한때 단짝이던 두 소녀는 모욕을 통해 성적 경쟁을 부추기는 '미친개'의 이간질로 관계가 파괴된다. 그러나 〈여고괴담〉은 현재시제의 사건에 지오(김규리)라는 제3의 인물을 더해 희망을 찾는다. 지오는 그저 그런 성적의 털털한 소녀다. 그림 그리는 취미와 분신사바 놀이로 혼령을 감지하는 재능 정도가 남다른 점. 하지만 영화는 그녀가 매우 강하고 기품 있는 인간임을 천천히 보여준다.

'늙은 여우'가 목매달려 죽음을 맞은 이튿날 아침, 주번인 지오는 양동이를 들고 수돗가에 갔다가 구름다리에 걸려 흐느적대는 담임의 시체를 목격한다. 끔찍한 광경과 마주친 이 소녀가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뒤따라 온 심약한 주번 짝 재이(최강희)를 품에 당겨



안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지오 자신은 신기한 새를 본 아이처럼 눈을 감지 않는다. 그녀는 경악하는 대신 찬찬히 관찰한다. 그리고 나중에 미술실에서 시체의 초상화를 그린다. 지오는 화가의 눈을 가진 자다. 관찰하고 묘사함으로써 마성과 공포를 퇴치하는 그녀는 〈여고괴담〉의 세계에서 예술가이며 주술사다. 마침내 비극의 사슬을 끊는 장본인이 지오라는 점은 그러므로 놀랍지 않다.

"9년 동안 학교를 다녀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학교라는 세계의 냉기와 무관심을 증언하는 유령의 고백이야말로 〈여고괴담〉의 가장 서늘한 슬픔이다. 지금도 고개를 파묻은 채 누군가 손 내밀어주기를 기다린 그 소녀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친구를 와락 당겨 안아 지켜주던 그 소녀 또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다.

여고괴담(Whispering Corridors) | 107분 | 15세미만불가

감 독 박기형 | **각 본** 인정옥, 박기형
출 연 이미연, 김규리, 박진희, 최강희
제 작 씨네2000 | **개 봉** 1998년 5월 30일

17 외출

April Snow

화장실의 소금기둥

교통사고로 불륜이 발각된다.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은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지는 바람에 비난과 추궁에 답할 수도 없는 처지다. 예기치 못한 배우자의 부정 앞에 몸서리치는 서영(손예진)과 인수(배용준)는, 태생적으로 건강하고 온건한 인간들이다. 몸도 마음도 금간 데 없이 살아온 여자와 남자다. 그러나 건강하다는 말은 언제나 미량의 둔감함을 포함한다. 인수와 서영은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부류로 보인다. 남편과 아내와 나눠온 다정한 평온함이 사랑이려니 선뜻 믿었고, 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그렇다 한들 그 독이 치사량에야 이르겠냐고 생각했을 법한 남녀다. 강원도 삼척에서 배우자들의 병상을 겨우내 지키던 둘은, 기이한 연애를 시작한다. 남편과 아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놀러 다녔을 장소를 뒤밟으며 묵묵히 데이트를 하고, 그들이 묵었을 호텔에서 정사를 나눈다.

〈외출〉은 이를테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멜로드라마다. 허진호 감독은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흔한 말을 심사숙고한다. "그들도 우리처럼"으로 요약되는 〈외출〉의 아이러니를 강렬

하게 각인시키는 상황은 인수의 모텔 방에서 벌어진다. 왜냐고 굳이 묻지 않은 채 첫번째 정사를 마친 두 사람은 고요한 한때를 보내는 중이다. 서영은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는다. 다가온 인수는 서영의 머리칼을 귓바퀴 뒤로 넘겨주고 그녀가 앉은 의자를 자신을 향해 돌린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서영의 두 손을 감싼다. 한 남자에게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진 여인의 얼굴은 여왕처럼 빛나고 모텔 방의 싸구려 회전의자는 옥좌가 된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인수의 장인이다. 서영은 외마디소리도 내지 못한다. 인수가 내미는 코트와 가방을 그러안고 화장실에 숨은 그녀에게 인수는 구두까지 챙겨 가만히 들이민다. 몇 초 전만 해도 긍지 높은 위대한 연인이었던 여자는, 순식간에 돌팔매를 겁내며 숨죽인 죄 많고 초라한 여자로 급전직하한다. 장인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던 인수가 살짝 돌아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서영은 소금기둥이 된 양, 그대로 서 있다. 문이 좀 더 활짝 열리면, 방금 관객이 본 얼어붙은 서영의 모습이 욕실 거울에 비친 반영이었음이 드러난다. 이제 화면에는 두 여자가 보인다. 인수를 기다리는 영원 같은 몇 분 동안 서영은 거울 속에서, 남편이 숨겼던 여자—인수의 아내를 보았을 것이다. 인수와 서영은 수치심과 두려움의 한기 속에 포옹한다. 그러나 남자는 기다리는 장인에게 가기 위해 다시 몸을 돌려야 한다. 다시 등 뒤에 남겨진 서영의 얼굴을 카메라가 짧은 순간이라도 보여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인수와 서영은 연고자 하나 없는 도시에서 만나 천천히 사귄다. 따라서 보통 불륜의 사랑을 따라다니는 추문의 위협은 비교적 적다. 실상 그들의 감시자는 이 영화의 카메라뿐이다. 감독의 눈길이기도 한 카메라의 시선에 담긴 감정은 분명치 않다. 때로는 스캔들 구



경하듯 싸늘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멜로드라마의 그것처럼 감미로워진다. 하지만 연인들은 당연히 카메라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는 걸로 정해져 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 둘을 떨어뜨려놓고 영화가 의도적으로 둘러친 적막 속에서, 화장실 신의 거울은 서영을 똑바로 손가락질한 것이다. 서영도 거울의 고발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대답을 정리했을 것이다. 미안해하는 인수에게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서영은 어떤 결의를 조용히 표명하는 중이다. 이후로도 둘의 관계에서 언제나 더 용감하고 덜 망설이는 쪽은 서영이다. 지금도 이따금 궁금해진다. 서영과 인수는 알고 있었을까? 그 참담한 전락轉落과 영락零落의 순간에 비로소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외출(April Snow) 105분 | 18세관람가

감 독 허진호 | **각 본** 신준호, 서유민, 허진호, 이원식, 이일 | **각색** 김효관, 이숙연
출 연 배용준, 손예진, 임상효, 김광일
개 봉 2005년 9월 7일

08

용서받지 못한 자

The Unforgiven

굴욕은 어떻게 순환되는가

기억은 편의에 복종한다. 용량이 한정된 우리의 뇌는 회상하기 싫은 시절의 기억부터 서둘러 비워낸다. 더불어 그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도 빠르게 지워진다. 제대 후 구직 중인 〈용서받지 못한 자〉의 태정(하정우)은, 군대 후배이자 중학교 동창인 승영(서장원)의 갑작스런 연락에 허둥댄다. 말로는 반기지만 표정은 자못 당혹스럽다. 군 생활의 관습을 혐오했던 신병 승영은 소신 있는 '고문관'이었다. 그런 승영을 직속 선임병인 태정은 힘닿는 대로 보호했지만 "친구라서 싸고돈다"는 구설수가 두려워 결국 부대원들 보는 앞에서 승영을 구타해야 했다. (달리 말하면, 군대는 친구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을, 하급자에게 골고루 행하도록 권유하는 곳이다.) 군대라는 이유로 친구의 뺨을 때렸던 기억은 바깥세상으로 나온 지금 껄끄럽기 짝이 없다. 그러므로 제대한 태정이 만나기를 꺼리는 방문객은, 승영이 아니라 그가 데리고 나타날 과거의 군복 입은 자신이다. 아니나 다를까, 승영과 만난 자리에 여자친구까지 불러낸 태정은, 여자에겐 군대 무용담을 과시하고 승영에겐 자신이 사회에서도 군대에서와

같은 힘을 갖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애쓴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많은 장면이 자연스런 코미디 효과를 내는 까닭은, 관객이 군대 밖 세계에서 이 영화를 구경하기 때문이다. 즉, 문화적 차이가 낳은 웃음이다. 대대장의 군화가 다른 대대장의 그것보다 광택이 밋밋하면 왜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인가? 선임병은 왜 제 손으로 슬리퍼를 가져다 신을 줄 모르는가? 착한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이 왜 더 우수한 인간인가? 입대하고 나서도 상식적 세계의 규칙을 포기하지 않는 승영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다. 조직에 부적응하는 청년들은 흔히 자문하기 마련이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걸까? 나를 괴롭히는 저 상급자라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러나 원칙을 믿는 승영은 개인이 아닌 제도가 잘못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군 생활의 목표를 세운다. "고참이 되면 난 저들과 다르게 행동하겠어." 드디어 어설픈 신병 지훈(윤종빈)이 들어오자 승영은 벼른 대로 실천한다. 모두 잠든 밤, 승영은 지훈을 화장실로 불러내 그가 먹고 싶다던 라면 봉지에 더운 물을 부어 건넨다. 그리고 묻는다. "다른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나한텐 다 이야기해도 돼." 순간, 인기척이 들린다. 숨죽인 승영의 귀에 화장실 밖에서 병장 태정이 상병 대석을 때리고 추궁하는 소리가 들린다. "밑의 새끼들 X같이 굴면 너부터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방법까지 알려줘야 해?" 짐작은 했으리라. 그러나 그를 묵인하고 보호해온 태정의 울타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탱되는지 승영은 그날 밤 비로소 목도한다. 병장이 '알려주지 않은 방법'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병 대석은 '관리자'로 변모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필요를 곧 자신의 필요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려면, 그 가치의 반대말로



이뤄진 세계의 유능한 부품이 되어야 한다는 역설은, 태정의 제대 후 홀로 남겨진 승영의 뼈에 점점 더 사무친다. 군복 입은 폼이 그럴싸해진 여름, 승영은 생존을 위해 상급자에게 뇌물을 바쳐 아부하고 적응 못 하는 어리숙한 후배를 짐짓 비아냥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승영의 무리한 변절은 부작용을 낳는다. 조직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변하는 현상은 비단 군대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직의 지위는 업적의 성취와 함께 주어지고 성취의 과정에서 개인은 이미 변해 있기 쉽다. 하지만 연조를 가리킬 뿐인 군대의 지위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무리를 강요하기도 한다. 나쁜 조직은, 개인이 윤리적 주체성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 결과 발생하는 불행에 대한 죄책은 개인에게 전가한다. 고참이 되면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승영은 끝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끝내 참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라던 시인 랭보의 탄식에, 승영은 아마 서글프게 동의했을 것이다.

용서받지 못한 자(The Unforgiven)	121분 | 15세관람가
감 독 윤종빈 | **각 본** 윤종빈, 김병철, 손상범, 장선희 **출 연** 하정우, 서장원, 윤종빈, 임현성 **제 작** 에이앤디 픽쳐스 | **개 봉** 2005년 11월 18일	

09 우아한 세계

The Show Must Go On

퍼펙트하다, 퍼펙트해

〈우아한 세계〉의 들개파 중간보스 강인구(송강호)는 〈달콤한 인생〉의 김선우(이병헌)와 함께 한국 조폭 영화의 습성을 슬쩍 벗어난 인물이다. 야근(?)하러 가는 길에 핸들을 붙든 채 꾸벅꾸벅 조는 그의 프로필은 영락없는 월급쟁이다. 가족은커녕 가구도 몇 점 없이 살아가는 〈달콤한 인생〉의 선우가 할리우드 스타일의 갱스터를 동경하는 단독자라면, 강인구는 중산층 안착을 오매불망 꿈꾸는 한국형 가장이다. 바쁜 와중에도 잘 다린 고급 와이셔츠를 차려입고 다니는 그는, 중소기업 사장의 풍모를 갖추는 데에 열심이다. 〈우아한 세계〉의 도입부는 얼룩을 없애느라 분주한 강인구의 행동을 연달아 보여준다. 차에 난 흠집을 소매로 문지른 그는 다시 소매에 옮은 더러움에 마음을 쓴다. 구두에 튄 과일 찌꺼기와 인질이 자동차 시트에 토한 오물에 짜증을 낸다. 〈우아한 세계〉가 주는 재미의 큰 몫은 역시 유머다. 그러나 조연들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 패는 조폭 코미디의 가학적 폭소 대신, 〈우아한 세계〉에서는 갱스터 장르의 비장한 관습이 추레한 리얼리티에 걸려 자빠지는 광경의 유머가 관객을 웃게 한다. 마흔이 된

강인구는 일단 몸싸움이 자신 없고 귀찮다. 건설회사의 하청업자들이 하필 현장 꼭대기에서 시위를 벌이던 날 강인구는 20층 넘는 계단을 오르다 지레 지쳐버린다.

남을 등치고 때리고 협박해서 살아가는 강인구의 핑계는 '가족'이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희생을 별로 기꺼워하지 않는다. 사춘기 딸은 아빠를 경멸한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인구가 반문하자 아내(박지영)는 "네가 벌어다 준 돈 한 번도 맘 편히 써본 적 없다"고 받는다. 그녀의 말은 옳다. 강인구는 영화 후반부에 마침내 폭력 조직에서 발을 빼고 아내와 딸의 사랑을 되찾을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마흔 넘은 남자는 낯선 희망보다 익숙한 실망을 선택한다. 〈우아한 세계〉의 최대 미덕은, 조폭 남성의 어리석고 폭력적인 삶을 불가피한 희생으로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퍼펙트하다, 퍼펙트해." 강인구는 반어적인 혼잣말을 입에 달고 산다. 밥도 혼자 먹는다. 아내와 딸마저 아들이 유학 중인 캐나다로 떠난 후, 인구는 가족을 위해 장만한 2층집에 완벽하게 홀로 남는다. 어느 햇빛 찬란한 날, 인스턴트 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는 인구에게 캐나다의 가족이 보낸 비디오 편지가 배달된다. 그러나 테이프를 반갑게 비디오에 넣고 TV 앞에 웅크려 앉은 인구의 얼굴에서는 천천히 웃음기가 걷힌다. 그 빈자리에는 울분이 꿈틀거린다. 비디오 속 아내와 아들, 딸의 모습은 행복하고 우아하다. 그가 원했던 대로다. 인구는 그제야 통렬히 깨닫는다. 이 가족은, 자신이 빠짐으로써 비로소 행복하고 우아해졌다는 사실을. 식구들은 카메라 너머 인구가 아니라, 인구의 부재를 향해 웃고 있다. 이 가족은 인구가 벌어오는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벌어왔는지 잊을 수 있길 바란다. 연료를 공급 받고 오물을 내보내는 배관을 감쪽



같이 가린 건물의 그럴싸한 전면처럼. 〈우아한 가족〉에서 강인구가 의지했던 버팀목은 혈연의 가족, 그리고 친형처럼 여기는 조직의 보스다. 그러나 영화 속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이상화된 가족과 조폭의 의리가 상징하는 유사 가족 판타지는 파투가 난다. 이 패밀리도 저 패밀리도 개인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우아한 세계〉는 조폭도 생활인임을 보여주는 영화로 홍보됐다. 그러나 이 영화는 대다수의 생활인이 얼마간 비굴하고 가학적인 '조직 폭력적' 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서늘한 진실을 보여준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도 '잘살기' 위해 원칙을 포기하며 훼절한다. 기만하고 약자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런 일로 벌어온 재화로 먹고산다.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과 피부양 가족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타협, 서로를 핑계로 삼은 밥벌이의 지겨움과 서러움을 〈우아한 세계〉는 보여준다. 우리의 기만과 타협은 수습할 수 없이 엉켜 있다. 절망한 인구가 뒤엎어버린 비빔면의 퉁퉁 분 면발처럼.

우아한 세계(The Show Must Go On)	112분 | 15세관람가
감 독 한재림 | **각 본** 한재림 | **각 색** 이원재 , 이지원 , 서신혜 **출 연** 송강호, 오달수, 박지영, 윤제문 **제 작** ㈜루씨필름 | **개 봉** 2007년 4월 5일	

20 자유부인
Madame Freedom

자유는 개뿔!

장태윤 교수(박암)는 부인 오선영(김정림)이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 생각에 빠진다. 얼마 전 그는 젊고 매력적인 타이피스트 미스 박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참이다. 그 무렵 오선영은 한 사장(김동원)과 처음이자 마지막인 밀회를 감행하다가 그 부인에게 들켜 뺨을 맞는다. 벌거벗겨진 참담한 심정으로 귀가하는 선영의 모습 위로,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듯한 〈고엽〉의 선율이 깔린다. 관계도 없는 사이렌 소리에 하얗게 질리는 오선영의 얼굴을, 헤드라이트 불빛이 매정하게 후려치고 지나간다. 이윽고 집에 당도한 그녀는 문간에서 남편과 마주친다. 장태윤은 힐난한다. "당신이 왜 이리 늦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소. 허영에 빠져 가정을 저버리고 어머니의 의무를 향락으로 바꾼 당신이 무슨 면목으로 돌아왔소? 만약에 한 조각의 양심이 남아 있거든 깨끗이 여기서 물러가시오. 그것이 경수에 대한 어머니의 도리가 아니겠소? 이미 우리 두 사람의 거리는 멀어지고 말았소. 각기 제 갈 길을 가기로 합시다." 마치 미리 머릿속에서 몇 차례 고쳐 쓴 판결문처럼 들리는 남편의 말은 군데

군데 비약이 있다. 이참에 아내를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면 그것도 과히 나쁘지 않으리라는 심산마저 은근히 엿보인다. 선고를 마친 남편은 우뚝 서서 내려다보고 아내는 눈 쌓인 땅에 주저앉아 처분만 기다린다.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자유부인'이라는 호칭은 오선영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별명이다. 그녀가 과도하게 누렸다고 비난받는 자유의 정체는 볼품없다. 이 영화가 그리는 부녀자들의 자유는 실상 감각적 쾌락에 가까운데, 그 실질적 내용은 경제력과 낭만적 연애다. 대학교수 부인 선영이 부업 전선에 나선 것은 겨울나기를 앞두고 빠듯한 가계에 보탬이 되려는 뜻에서다. 1956년에 개봉된 〈자유부인〉은 살림꾼 역할을 넘어, 계와 '빚 놀이' 등등을 통해 재테크에 손을 내밀기 시작한 당대 기혼 여성들의 변화를 생생히 전한다. 남편들은 재산을 늘린다는 명분에 동의해 마지못한 척 아내들의 '외출'에 동의하지만,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일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를 깨우치고 있다. 선영의 친구는 속삭인다. "여성은 남편의 압제를 안 받으려면 경제력이 중요해." 그러나 여성의 직업이 돈벌이일 뿐 아니라, 가정과 무관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 반경을 갖는 것이라는 자연스런 사실을, 영화는 아직 불온하고 우려할 만한 사태로 바라본다. 극중 한 남성 캐릭터는, 점원으로서 오선영이 보여주는 야무진 일솜씨를 칭찬하면서도 "모던 여성들은 매춘부적 소질이 농후해지기 마련이다"라는 주석을 보탠다. 그렇다면 낭만적 연애 쪽은 어떨까? 오선영은 무뚝뚝한 남편 장 교수에게서 얻지 못한 연애의 기쁨과 쾌락을 맛보기나 했던가? 선영에게 춤을 가르쳐준 옆집 대학생 춘호는 자유의 의미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나이 든 여자를 등쳐서 젊은 여자와 놀아나는 풋내기로 판명된다. 선영 역시 춘호의 아첨이 주는 흥분



을 사랑했을 뿐이다. 실망과 모욕을 달래기 위해 충동적으로 안긴 한 사장도 버릇처럼 그녀에게 집적거렸을 뿐 정작 아내가 들이닥치자 선영을 보호하기 위해 손끝 하나 까닥하지 않는다. 선영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그녀의 굴욕이 연애라고 부르기도 뭣한, 감정 없는 시시덕거림에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선영의 집 앞으로 돌아가보자. 울먹이는 아들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결국 질렀던 대문 빗장을 연다. 뛰쳐나간 어린 아들은 막 화면 밖으로 퇴장하려던 엄마를 끌어안아 주저앉힌다. "경수야, 이 엄마가 다 잘못이란다." 여인의 이 말은 물론 남편을 향한 애원이다. 앞서 춘호와 포옹을 나누는 순간 엄마를 불러 탈선을 막았던 아들은, 또 한 번 선영을 구조한다. 남편의 얼굴로 이동했던 카메라는, 뒤로 훌쩍 물러서 세 식구를 다시 한 프레임에 담음으로써, 이 가족이 가까스로 봉합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그들은 영화 도입부의 정경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이가 끼어야만 지탱되는 지루한 삼각구도로.

자유부인(Madame Freedom)	124분
감 독 한형모 | **각 색** 김성민, 이청기 **출 연** 박암, 김정림, 노경희, 주선태 **제 작** 삼성영화사 | **개 봉** 1956년 6월 9일	

21 질투는 나의 힘

Jealousy Is My Middle Name

필요한 건 우상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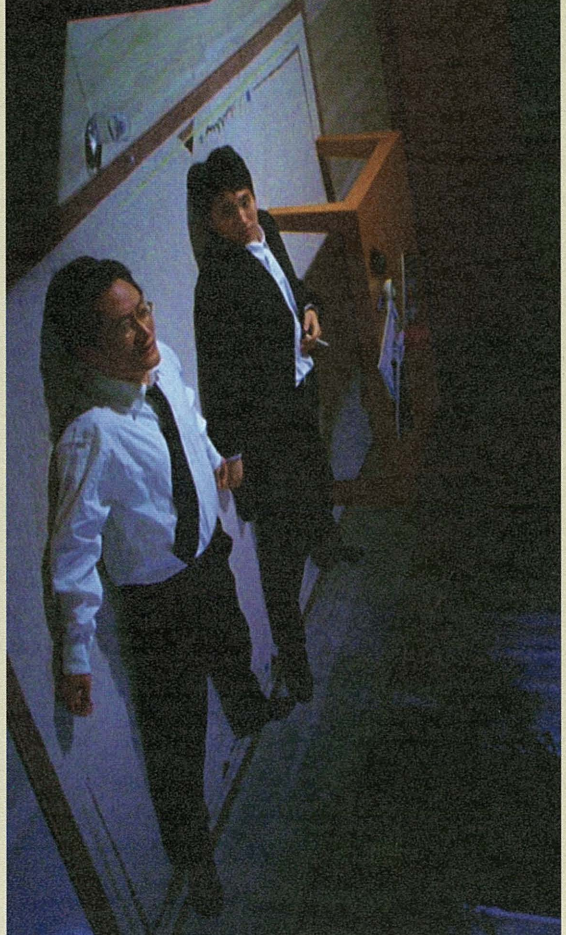
한윤식(문성근)은 관록 있는 문학지 편집장이다. 이원상(박해일)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이력서와 논문을 번갈아 시큰둥하게 끄적거리고 있는 청년이다. 어느 날 그의 여자친구 노내경이 유부남 한윤식을 사랑하게 됐다며 이별을 통보한다. 자취방을 걸레질하며 분을 삭이던 청년은, 한윤식의 잡지에 객원기자로 일할 기회가 오자 충동적으로 붙잡는다. 설상가상으로 이원상이 새롭게 호감을 품은 동료 사진기자 박성연(배종옥)도 한윤식과 연애를 시작한 눈치다. 이중의 연적이라니, 바야흐로 무시무시한 치정 복수극으로 치달을 법한 상황이다. 그러나 〈질투는 나의 힘〉이 관찰하는 진실은 치정 복수극 따위를 만들어내기엔 너무 미지근하다. 다만, 그것의 행로가 뜻밖이다.

영화에서 이원상과 한윤식은 각기 세 여인과 관계를 맺는데 그 교집합인 두 여자—노내경과 박성연—는 배우 배종옥이 1인 2역으로 연기한다. 이를테면 그들은 한 여자인 동시에 세상의 모든 여자다. 영화는 원상의 강박이 한 여자에게 얽힌 마음이 아니라, 능란하게 나이 먹은 중년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을 향한 선망이라는 점을 서서히

드러낸다. 한윤식은 적당한 권위와 적당한 반권위주의, 명쾌한 언변과 약간의 어리광을 절묘하게 구사하며, 원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어낸다. 그가 인생과 벌이는 거래는,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미세하게 불공정하다. 이 사내가 콧노래를 부르면 세상은 흔쾌히 코러스를 넣어준다. 유선형의 물고기처럼 세파를 헤쳐가는 솜씨는 또 얼마나 매끄러운지! 이원상은 급격히 매혹된다("정말 명쾌하시네요!"). 질투는 무기력한 그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운전기사가 되어 한윤식의 집까지 들락거리게 된 이원상. 그에게 필요한 존재는 애초에 연인이 아니라 우상이었다. 여자를 얻는 법 따위는 우상이 가르쳐 주리라!

한윤식 역시 이원상이 가지고 있는 진공을 알아본다. 반하게 만들어야 속 시원한 여자도 아니고, 경쟁 의사가 있는 남자도 아닌 이 상대가 한윤식은 썩 마음에 든다. 급기야, 이원상은 기획 아이템을 정하는 회의 석상에서 "편집장님은 원상이만 예뻐한다"는 동료의 불평을 듣고 좋아서 발그레한 미소를 짓기에 이른다. 포식자다운 예민한 후각으로 한윤식은 이원상의 완전한 항복을 접수한다. 그리고 "귀여운 데가 있는 새끼"라고 흐뭇하게 품평한다. "내게 이래라 저래라 말해준 사람은 편집장님이 처음"이라고 고백하는 청년의 눈동자는 감격으로 빛나고, 거기에 화답하는 중년의 미소는 자애롭기 그지없다. 이제 이원상은 거의 한윤식에게 '입양'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즈음 한윤식이 장인상을 당하자 이원상은 조의금 접수대를 착실히 지킨다. 조문객으로 찾아온 박성연에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두 남자는 한윤식의 거실에 나란히 눕는다. 자발적 존경과 후원의 거래는 신뢰 아래 서명 봉인되었다. 한윤



식은 이원상의 손을 슬쩍 잡고 미래를 이야기한다.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아예 옆집으로 이사 와라. 아니 들어와 살아라." 무장을 해제한 두 사내는 더없이 흡족하고 평온해 보인다. 여자들은 이야기의 원경으로 사라지고, 이원상은 짐을 꾸려 한윤식의 집으로 입주한다. 더부살이 청년은 이사 첫날 한윤식의 어린 딸 방에 들어가 잘 지내자는 인사를 건넨다. 흡사 떨어져 살다 귀가한 오빠 같다. 소녀는 화목하게 거실에 둘러앉은 부모와 원상의 모습을 불길한 눈길로 바라본다. 그 풍경에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음을 소녀는 예민하게 감지한다.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기형도의 시 「질투는 나의 힘」 역시 탄식했던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러움만으로 꾸역꾸역 바퀴를 굴려가는 군색한 청춘을.

질투는 나의 힘(Jealousy Is My Middle Name)	125분 | 15세관람가
감 독 박찬옥 | **각 본** 박찬옥 **출 연** 박해일, 문성근, 배종옥, 서영희 **제 작** 청년필름 | **개 봉** 2003년 4월 18일	

22 짝패

The City of Violence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 책의 제목이 무색하게 〈짝패〉는 웬만해선 멈추지 않는 영화다. 인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필경 카메라가 운동한다. 네번째 장편 〈짝패〉를 마치고 류승완 감독은 "〈영웅본색〉의 인물이 〈차이나타운〉에 들어가 〈폴리스 스토리〉의 액션을 하는 광경을 〈분노의 주먹〉 식으로 찍어 〈와일드 번치〉 식으로 편집한 영화"라고 했다. 또 "앞으로 이런 순수 액션 영화는 못 만들 것 같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이라 더 진득한 포옹처럼 〈짝패〉는 화끈하지만 쓸쓸한 영화다. 〈짝패〉의 시선은 회억에 젖어 있다. 충청도 소도시 온성에서 주먹질을 하며 십대를 같이 보낸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이 들어 살다가 재회한다. 건달 일에서 손을 씻고 호프집을 차려 정착한 왕재(안길강)가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범인은 십대 취객이었다지만,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태수(정두홍)와 석환(류승완)은 끈질기게 진상을 캔다.

소위 '본정통 액션'으로 불리는 대목은 본격으로 합을 맞춰 디자인된 〈짝패〉의 첫번째 액션 시퀀스다. 본정통은 한국 어느 도시에나 있을 법한 어슷비슷한 상점 거리. 이 장면의 구도는 '사면초가四面

楚歌'로 요약된다. 휘적휘적 걸어가는 태수의 앞길에 춤 연습하는 비보이들이 거치적거리는가 싶더니, 자전거를 앞세운 십대 패거리가 밀고 들어온다. 태수는 피식 웃고 피하려 하지만, 하키스틱을 걸머진 십대들과 〈킬 빌〉의 '고고 유바리'를 언니로 모실 법한 살벌한 소녀들, 그리고 방망이를 흉기로 둘러멘 야구부가 교차로를 순서대로 봉쇄한다.

날아든 하키의 퍽과 야구공을 신호탄으로, 태수는 혈로를 뚫기 시작한다. 이 시퀀스에서 은연중에 배어나는 정서는, 몰려다니는 십대들의 언어도 몸짓도 이해할 수 없는 중년남자의 이질감과 공포다. 시퀀스 서두에서 광대처럼 표정을 덮은 화장을 하고 물구나무 선 채 정지해 있는 십대 비보이들의 기괴한 모습은 일격을 날리기 전부터 태수를 얼어붙게 한다. 이 아이들은 이족異族이다. 태수와 석환의 옛 친구 중 한 명인 건달 필호(이범수)는 영화 서두에 이렇게 말했다. "요새 애덜이 겁이 없잖여? 나도 제일로 무서운 게 애덜인데." 십대들과 대결하는 태수와 석환의 싸움 기술은 그들의 영웅이었던 전성기 성룡의 그것이다. 태수와 석환은 소화기, 입간판, 공사 바리케이드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휘두른다. 두 어른의 목표는 오직 살아남을 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시퀀스는 전기공사 중인 사다리를 들이받아 피어오르는 불꽃으로 마무리된다.

태수와 석환의 눈에 온성은 예전 고향이 아니다. 부동산 개발 광풍의 하수인이 된 십대들의 맹목적인 폭력에 비해 추억 속 학교 대항 패싸움은 자못 목가적이기까지 하다. 다른 길이 막혀버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절박한 청춘들과 달리 〈짝패〉의 십대들에게 사람을 때리고 밟는 행위는 컴퓨터 마우스 클릭과 별 차이가 없다. 류승완 감독의 전작 〈아라한 장풍대작전〉에서만 해도 도시를 질주하는



경박한 아이들은 희망이었다. 비록 장풍을 깨치지 못해 혼자 단독 영웅이 되진 못하지만, 비장한 표정을 짓지 않아도, 굳이 한데 단결하지 않아도 놀이하듯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거기 있었다. 그러나 〈짝패〉의 무서운 십대들은 더 이상 영화 청년 류승완의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탐욕이 만물을 집어삼키는 도시에서 과거의 순진한 소년인들 안전할 리 없다. 돈과 힘에 홀려 우정을 버린 친구에게 태수는 묻는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짝패〉의 세계에서, 과거의 아이들은 부패했고 현재의 아이들은 괴물이다. 이 영화가 탄식 같은 욕설 한마디로 끝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짝패(The City of Violence)	92분 | 18세관람가
감 독 류승완 | **각 본** 이원재, 류승완, 김정민 **출 연** 정두홍, 류승완, 이범수, 정석용 **제 작** ㈜외유내강 | **개 봉** 2006년 5월 25일	

23 청연 青燕

Blue Swallow

현실이 사라지는 창공

행복의 까다로움은 익히 알려져 있다. 행복은 대개 불행보다 미끄러워 붙들기 어렵고, 정의하기 난감하며, 오래 지속되기도 힘들다. 그런데 역사는 이따금 한술 더 떠, 행복을 터부taboo로 만든다. 공동체가 심한 고난에 처한 시대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적인 행복을 일수이자로 얻은 빚으로 느끼게 한다.

윤종찬 감독의 〈청연〉은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조선 출신 비행사 박경원(장진영)의 일대기를 극적으로 재구성했다. 영화를 여는 이미지는, 일본군이 행진하는 길가에, 통곡하는 마을 어른들과 신바람 난 아이들이 뒤섞여 있는 광경이다. 공부 욕심이 많은 소녀 경원에게 먼저 넘어야 할 벽은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라, 계집애가 학교가 웬 말이냐 질색하는 조선의 아버지다. 열한 살의 어느 해질녘, 경원은 언덕에서 진짜 비행기를 목격하고 벼락같이 매혹된다. 그야말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순간이다. 낮게 나는 비행기 동체의 육중한 그림자에 감싸인 작은 소녀는 두려워하기는커녕 황홀해한다. 그러나 관객은 비행기 꼬리가 뿜어 올리는 불길한 검은 연기를 본다. 〈청연〉에

서 행복의 이미지는 이처럼 불행 혹은 슬픔과 반복하여 등을 맞댄다. 마치 그러지 않으면 행복이 죄스러운 일이 될까 염려하듯.

1920년대 중반 일본 다치가와 비행학교에서 공부하는 박경원의 생활은 꽤 경쾌해 보인다. 그녀는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처럼, 불안하리만큼 씩씩하다. 경원과 애인 지혁(김주혁), 비행학교 조선인 후배 정희와 세기는 자주 술자리를 갖는다. 그러나 자못 즐거워 보이는 넷 중 한둘은 언제나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폭음하고 위액을 토한다. 그리고 자고로 술은 제일 수월한 자기학대의 방식이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제국으로부터 선택 받은 조선 젊은이들은 노래한다.

영화의 액션 클라이맥스에서도 희열과 고통은 병치된다. 억울하게 전全 일본비행대회 학교대표에서 탈락했던 경원은, 후배 세기의 갑작스런 중상으로 비행 고도를 겨루는 종목에 출전한다. 4천 미터, 4천5백 미터. 구름을 뚫고 상승한 그녀가 기록을 깨는 찰나의 클로즈업은, 조선인 후배가 수술실에서 숨지는 비통한 순간과 교차 편집된다. 무아지경에 달한 경원의 표정은 성취감의 열락인 듯 비탄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인 듯 어사무사하다. 할리우드 초기 여성영화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스트롱〉에서 사회적 금기를 위반한 여성 비행사 캐서린 헵번도 자살 비행의 순간에 그런 얼굴을 했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극히 강렬한 기쁨은 감정체계를 압도하며, 엄청나게 강한 감정은 어떤 것이 되었건 괴로움의 순간을 빚어낸다고 한다. 어쨌거나 이렇게 〈청연〉에서 순도 백 퍼센트의 행복은 또 한 번 금기시된다. 기록을 깨뜨린 경원의 비행기는 투신자살을 연상시키는 수직선을 그리며 하강한다.

실제 박경원은 "가장 행복하고 달콤했던 순간은 하늘로 비상할



때였노라"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청연〉은 경원이 느끼는 창공의 감각적 매력과 비행의 쾌감을 관객에게 설명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한다. 아니, 영화 속 시대가 그것을 금한다. 굳이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낙점하지 않았다면 〈청연〉은 훨씬 자유롭게 비행했을 영화다. 〈청연〉의 하늘은 하나의 안티테제, '지금 여기'와 '땅'의 반대말로 존재한다. 영화 속 경원은 하늘이 왜 좋은지 묻는 지혁에게 "하늘에 올라가면 조선인, 일본인, 여자, 남자, 그런 게 상관없잖아"라고 대답한다. 경원이 사랑하는 하늘은, 그러니까, '현실이 사라지는 곳'이다. 〈청연〉은 죽은 경원이 되살아나 고향 상공을 낮게 나는 환상적 에필로그를 덧붙인다. 그녀는 영원히 깨지 않아도 좋은, 잠이 부른 꿈속에서야 비로소 행복하게 땅을 향해 손 흔든다.

청연(Blue Swallow) | 133분 | 12세관람가

감 독 윤종찬 | **각 본** 윤종찬, 이인화
출 연 장진영, 김주혁, 유민, 한지민
제 작 코리아픽쳐스(주) | **개 봉** 2005년 12월 29일

24 춘향뎐

Chunhyang

연분은 저항이었네

각색이 반역으로 귀결되는 불상사가 다반사지만, 영화로 인해 고전 예술의 정수를 접하는 행운도 드물게 있다. 임권택 감독의 걸작 〈춘향뎐〉은 판소리의 미학을 영화의 열두 폭 치마에 받아안아, 지금껏 우리가 알아온 것은 〈춘향전〉이 아니라 그 앙상한 줄거리에 불과했음을 깨우친다. 한편 〈춘향뎐〉은 대범한 생략의 달인으로 알려진 임권택 감독이 〈춘향뎐〉의 소리에 몸을 낮추어 따르며 감정에 흠뻑 빠져 노니는 특수한 작품이기도 하다.

바야흐로 애간장 녹이는 '십장가' 대목. 춘향(이효정)은 신관 사또 수청 들라는 청천벽력에 당돌히 한 일一, 마음 심心 두 글자를 휘갈겨 응대하고, 노한 사또 "관장 조롱한 년"을 죽이라 명하니 춘향은 유부녀 겁탈은 죄가 아니더냐 악쓴다. 곤장 견디기도 큰일이거늘 열 번 매질을 북장단 삼아 절개까지 노래하자니 탈진은 당연한 일. 반 넘어 혼절한 춘향이 방자 등에 업혀 나오자 춘향이 맞아 죽을까 간 졸이던 교방청 기생들이 우르르 내달아 포졸들을 꼬드겨 세운다. 향단이 품에 널브러진 춘향을 포대기 모양 휘휘 둘러싼다. 이상하게

도 춘향 어머니 월매가 배제된 이 쇼의 구도에서 춘향은 모든 기생의 딸처럼 보인다.

수심이 그득한 중에 한 기생이 갑자기 울다가 웃으며 얼씨구나 절씨구 지화자 좋을씨고 노랫가락에 춤을 곁들인다. 애통한 지경에 무슨 망발인가 노랫말을 들어보면, 진주의 논개와 평양의 계월향이 왜장을 죽여 공을 세우고 임금 살린 청주 기생 화월이 나라의 기림을 받았는데 이제야 우리 남원에도 현판감 열녀 기생이 났다는 자축의 노래다. 그러나 기꺼운 가사와 딴판으로, 여인의 목청은 곡한 뒤끝마냥 팍팍하고 음률은 구슬프기 짝이 없다. 변학도 말마따나 "기생이 수절이라니 사대부 댁에서는 아주 요절을 하겠다" 빈정대는 세상 아닌가. 노래의 진의를 파악하자, 주책스런 동료를 타박하던 기녀들의 얼굴이 수굿해지며 일제히 설운 빛이 드리운다. 이 대목은 명창 조상현의 소리를 줄곧 따르는 영화 〈춘향뎐〉에서 극중 인물이 화면 안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예외적 장면이기도 하다. 임권택 감독은 이 장면에 반드시 기생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연출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십장가〉 대목에서 춘향은 "네 뜻이 어쨌건 기생의 딸은 관비요 기생"이라는 관리들의 말을 못 들은 척 우기고 있다. 입술을 앙다물고 '여염집 아낙'의 법도를 엄수함으로써 거꾸로 여염집 아낙의 이름을 얻겠다는 것이다. 양반 댁 처자의 수절은 봉건 이데올로기에 순응함이겠으나, 기생의 수절은 일종의 역공이다. 철들자마자 어머니에게 아들 없다 서러워 말라 외손봉사 다짐했다는 다부진 소녀 춘향에게, 양반과의 연분은 사랑이기에 앞서 가만있다간 영락없이 닥쳐올 계급적 전락에 저항하는 싸움이다. 동시에 양반인 아버지에게 버려진 어머니 월매처럼 살 수는 없다는 입술 앙다문 결단이다.



말 나온 김에 돌아보자. 광한루에서 처음 본 후 "기생의 딸이라니 잘되었다"며 만만히 수작 걸어온 양반 도령 몽룡(조승우)에게 열여섯 살 춘향이 어찌했던가. 노리개 취급 않겠노라는 불망기를 치마폭에 기어이 받아냈다. 부모 따라 한양 가니 불가불 이별이라는 뻔뻔한 몽룡에게 어찌했던가. 경대 들어 박살내고 머리채 아드득 뜯고 몽룡 실은 나귀 발밑에 몸을 던져, 설혹 버릴지언정 차마 쉬 잊지는 못하도록 안간힘을 다하였다. 죽어 재회하면 계집 여자 변이 되고 아들 자자 몸이 되어 좋을 호好 자로 놀아보자는 둥, 녹수에 원앙이 되어 어화둥둥 떠 놀자는 둥 갖은 감언으로 피안의 행복을 약속하는 양반 애인에게 춘향은 번번이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라고 도리질 치며 못 박았다. 그녀에겐, 죽어서 뭐가 되기보다 이승에서 잘사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춘향뎐(Chunhyang) | 136분 | 12세관람가

감 독 임권택 | **각 색** 김명곤, 강혜연
출 연 이효정, 조승우, 이정헌, 김성녀
제 작 태흥영화㈜ | **개 봉** 2000년 1월 29일

25 칠수와 만수

Chil-su and Man-su

청춘의 페달

자전거는 대지를 꾸역꾸역 밀고 나아가는 탈 것이다. 긴장을 유지하며 다리에 내내 힘을 주어 구르지 않으면, 자전거는 운전자와 함께 쓰러진다. 발을 구른 만큼 나아가는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우리를 감쪽같이 먼 장소로 데려다놓지 않는다. 페달과 체인과 바퀴로 이루어진 작동의 내막을 앙상하고 정직하게 노출한 자전거는 생김새가 곧 기능인 기계이며, 사람이 앉았을 때 이윽고 완전한 형태를 이룬다. 오직 제 근육으로 생을 지탱하는 사람들에게 자전거는 아름답게 어울린다.

비토리오 데 시카의 〈자전거 도둑〉과 왕 샤오슈아이의 〈북경 자전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칠수와 만수〉의 자전거는 주인공들의 생계수단이다. 〈칠수와 만수〉의 무대는 올림픽이 열려 흥청거린 그 해 서울. 민방위훈련 사이렌의 엄포 아래 거짓말처럼 텅 빈 광화문 사거리에서 영화는 시작된다. 주인공 장칠수(박중훈)와 박만수(안성기)는 사회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이다. 성실한 일용직 도장공 박만수는 해외 건설현장에 취업하려 했으나 양심수 아버지를 가진 까닭

에 연좌제에 걸려 좌절했다. 그의 조수 노릇을 하며 얹혀사는 장칠수는 미술대 학생 행세를 하며 여자를 사귀고, 입만 열면 미국으로 이민 가네 큰소리친다. 하지만 그는 미군기지 동네의 생활과 술독에 빠진 아버지가 지겨워 가출한 처지다. "이 자식은 숨소리만 빼면 다 구라야." 외로운 만수는 칠수를 타박하면서도 밀어내지 않는다.

만수는 주류 사회에서 내쳐진 자고 칠수는 언제까지고 문밖에서 기웃거리는 자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들의 서울살이에는 뿌리가 돋지 않는다. 없을 때가 더 많은 일거리를 따내기 위해 만수는 여러 지방 사투리를 흉내 내며 공사 감독들의 고향 후배인 척 전화를 돌린다. 신축 아파트 외벽에 밧줄로 매달린 칠수와 만수는 발을 땅에 디디지 못한 채 도시의 고도에 위협 받는다. 소주를 팔지 않는 나이트클럽에서, 콜라 한 잔밖에 살 수 없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화장실을 쓰려고 들어간 화려한 백화점에서 그들은 주눅 들거나 그도 아니면 쓸쓸한 거짓말을 해야 겨우 버틸 수 있다.

이들에게 "우리가 세계를 건설하고 움직인다"는 노동자적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면 한 번 더 생각할 노릇이다. 칠수와 만수에겐 일단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공친 지 한참 만에 드디어 보수공사 일감을 얻은 만수와 칠수가 일터로 가는 장면은, 두 남자가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다. 만수가 손수 개조한 2인승 자전거 위에, 두 남자는 빌딩에 몸을 달아맬 줄과 페인트 통을 싣고 올라탄다. 지하철 3호선 교각의 그늘을 벗어나 아침 햇볕 속으로 나아가는 두 남자와 자전거가 짓는 천진한 표정을, 고故 유영길 촬영감독의 카메라는 숨죽여 지켜본다. 언제나 안으로 숙여져 있던 만수의 어깨는 부드럽게 열리고, 뒷자리에 앉은 칠수의 입가에는 허세가 아닌 진짜배



기 미소가 번진다. 가난한 이웃들이 서성이는 공터를 가로지르며, 둘은 단골 포장마차 아주머니에게 목례를 보내고 화답을 받는다. 오늘 밤에도, 일을 마친 그들은 다시 그녀의 가게에 들렀다가 긴 그림자를 끌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순간만큼 저 멀리 솟아오르는 신축 아파트 단지는 옥수동 빈촌의 초라한 공터를 압도하지 못한다. "지쳐 버린 가로수 아무 말 하지 않고 도시의 먼지 속에 그림자만 바라보네." 처량한 가사를 쾌활하게 불러젖히는 김수철의 노래에 박자 맞춰 둘은 달린다.

화면 속에서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고 있는 남자들은 칠수와 만수인 동시에 배우 박중훈과 안성기다. 지금 스물두 살의 박중훈은 청춘스타의 요람을 홀연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만수는 안성기가 청년의 얼굴로 연기하는 마지막 캐릭터다.

칠수와 만수(Chil-su and Man-su) | 108분 | 고등학생가

감 독 박광수 | **각 본** 최인석 | **각 색** 이상우, 지상학
출 연 안성기, 박중훈, 배종옥
제 작 ㈜동아수출공사 | **개 봉** 1988년 11월 26일

26 타짜

Tazza : The High Rollers

고수의 현기증

노름판에는 창문과 시계가 없다. 〈타짜〉의 도박판도 가구 창고, 비닐하우스, 부두에 정박한 배의 선실 등 밀폐 공간을 전전하며 벌어진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잠깐 빛을 가리고 시간을 멈춘 것만으로 다른 세계에 입장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온갖 조건을 에누리 없이 저울질해 셈을 치러주는 현실과 달리, 이 세계는 뜬금없는 친절을 내게 베풀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우연의 눈먼 축복을 바라는 초짜들에게는 애석하게도, 〈타짜〉는 도박 역시 갈고닦은 기술과 술수와 확률이 틀림없이 지배하는 냉정한 게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독의 세계가 늘 그렇듯 도박판에서는 프로페셔널들도 가볍게 취한 상태다. 낮은 조명이 떨어지는 〈타짜〉의 도박 테이블은 원형 극장이고, 사교 모임에나 어울릴 법한 과장된 성장盛裝을 한 프로 도박꾼들은 배우다. 그들은 패를 읽으며 연기를 하고, 둘러앉은 좌중을 쥐락펴락하는 대사를 뇌까리며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 듯한 흥분을 느낀다. 그들의 포즈는 현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에야 무너진다.

〈타짜〉에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정석인) 도박판의 별세계

와 현실이 맞닥뜨리는 버름한 순간이 있다. 주인공 고니(조승우)가 장차 그의 파트너가 될 괴짜 타짜 고광렬(유해진)과 처음 만난 화투판. 경찰의 단속을 알리는 붉은 경보등이 빙빙 돈다. 도박꾼들은 우왕좌왕한다. 탈출하기 위해 누군가 커튼을 걷자 지하 밀실인 줄만 알았던 도박장에 빛이 쏟아진다. 거드름 피우던 방은 대낮의 햇빛 아래 벌거벗겨져 삽시간에 머쓱해진다. 고니와 고광렬(유해진)은 도시의 이면도로를 내려다보며 지저분한 건물 외벽을 타고 도주한다. 흡사 막도 내리기 전에 객석 불이 켜진 극장의 배우들처럼 황망한 행색이다.

고니의 스승인 평경장(백윤식)과 짝귀(주진모)는, 타짜 중에서도 도박판에서조차 취기에 휘말리지 않는 최고수들이다. 물론 멀쩡한 정신을 얻기까지 그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 어느 날 서울의 노름판에서 짝귀를 알아본 고니는 황급히 예를 갖춘다. 그동안 팔을 잃어 의수까지 단 짝귀는, 기술을 쓰다가 귀를 잘려서 기술을 쓰지 않았더니 이번에는 팔을 잘렸다고 심드렁하게 말한다. 전설의 타짜는 돌아누우며 그가 생각하는 최선의 격려를 젊은 고니에게 던진다. "별거 아니야. 니도 곧 이렇게 될 끼야." 어떤 판에서도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던 고니는, 축 처진 걸음으로 도박장을 빠져나온다. 문밖은 이미 동이 터 아침이다. 고니의 충혈된 눈을 찌르는 햇살이 칼날처럼 시리다. 출근길 직장인들의 물결로 술렁이는 거리에서, 고니는 몹시 피로하고 철저히 혼자다. 멍한 고니는 택시를 타고 아무 데나 가달라고 귀찮은 듯 주문한다. 그러다가 짧은 데이트를 나눴던 미용사 지망생 화란을 발견하고 뒤를 따른다. 그녀는 서툰 기술 때문에 구박을 받고 있는 중이다. 화란은 고니가 밤새 도박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본다. 장면이 바뀌고, 고니는 문 열기 전의 어둑신한 카페 의자에



앉아 미덥지 않은 화란에 무방비하게 머리를 맡기고 있다. 비로소 평온을 찾고 혼곤히 잠든 남자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가 결국 돌아올 자리가 화란의 곁일 거라는 짐작을 품게 된다.

고니를 비롯한 〈타짜〉의 인물들은, 움직이며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다음 목적지를 확실히 알고 있으며, 그 다음번 패까지 예측한다. 영화 〈타짜〉도 그들을 닮아 발걸음이 재다. 그러나 짝귀를 만난 새벽 거리로 나선 장면에서 고니는 갈 곳 몰라 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여러 인물의 행적을 따르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는 영화 〈타짜〉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현실 세계와 '판' 사이를 왕복해야 하는 자들의 현기증을 지켜보고 있다.

타짜(Tazza : The High Rollers) | 139분 | 18세관람가

감 독 최동훈 | **각 본** 최동훈
출 연 조승우, 김혜수, 백윤식, 유해진
제 작 싸이더스FNH | **개 봉** 2006년 9월 28일

27 파이란
Fai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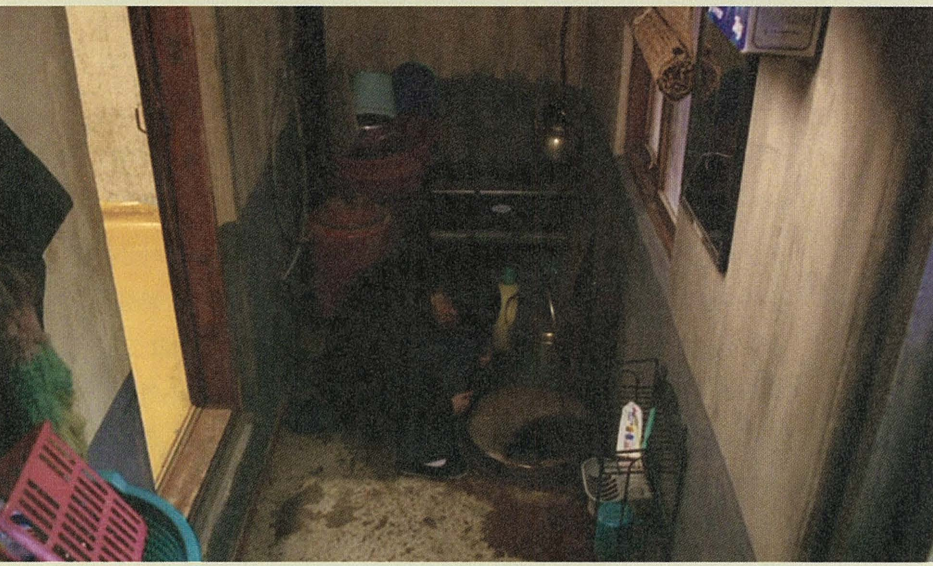
모두들 친절합니다

건달 강재(최민식)는 자기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기억해낸다. 얼굴도 모르는 중국 여인에게 목돈을 대가로 위장 결혼을 해준 일이, 그러고 보니 1년 전이었다. 경마장에서 날린 돈과 더불어 기억도 날아간 지 오래인데 그 여자 파이란(장백지)의 시신을 거둬가라는 통보가 날아온다. 송해성 감독의 〈파이란〉은 남자에게 시점을 부여한 이야기다. 여주인공 파이란은 여기서 순결한 유령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녀는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이미 죽었기에, 더 이상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강재(그리고 강재와 동일시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줄 성녀다. 마지못해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기차 안에서 강재는 죽은 파이란의 사진을 처음 쳐다본다. 강재의 시선이 그녀의 사진에 닿음으로써 비로소 파이란의 사연은 관객의 눈앞에 봉인을 뗀다.

그럼에도 〈파이란〉을 파이란의 이야기로 바꿔 읽는 일은 가능하다. 1999년 12월 인천 출입국 관리소에 도착한 파이란의 눈에 비친 낯선 나라의 풍경은 흑백이다. 하지만 유일한 피붙이였던 이모는 이미 한국을 떠났고 파이란은 타향에 홀로 버려진다. '희망 인력소개

소'를 통해 강재와 위장 결혼을 하고, 강원도로 '인도'된 그녀는 세탁소 잡역부로 일하다 폐병으로 죽는다. 죽기 전 파이란은 영화 속에서 몇 차례 눈물을 보인다. 처음은 애초 소개소에서 그녀를 넘긴 술집에서다. 접대부로 팔릴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파이란은 폐병 환자인 척하기로 결심하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혀를 깨문다. 여윈 뺨에 통증을 차마 이기지 못한 눈물이 흐른다. 그녀가 뱉은 피를 보고 사람 장사꾼들은 파이란을 세탁소로 넘긴다. 그러나 운명은 아주 잔인한 유머를 구사한다. 계절이 바뀌자 파이란은 진짜로 각혈한다. 소개업자를 찾아간 파이란은 연습한 한국말로 "많이 아픕니다. 제 돈 5개월만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라고 간청하지만, 장사꾼은 네 돈 못 받으면 나도 많이 아프다며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실질적 사형선고를 받은 여인은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떨군다.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가운데 두 번 목례하고 돌아선다. 액션이 포함된 영화지만 〈파이란〉에서 강재와 파이란에게 가해지는 가장 처참한 폭력은 인간적 품위를 짓밟는 모욕이다.

굳센 파이란은 딱 한 번 소리 내어 운다. 술집에서 겨우 도망쳐 세탁소에 고용된 밤. 끔찍이 긴 하루에서 살아남은 여자는 앞으로 그녀가 몸을 누일 쪽방을 둘러보고 천정에 대롱거리는 전등의 스위치를 가만히 켜본다. 비좁은 수돗가로 나아간 그녀는 동그랗게 웅크려 앉는다. 꼭지를 틀자 붉은 녹물이 후둑후둑 떨어지다 콸콸 쏟아진다. 간신히 설움을 참던 어린아이가 한마디 다정한 위로에 무너지듯, 파이란은 물소리 뒤에 숨어 울음을 운다. 그 흐느낌은 노인의 기침처럼 메마르다. 붉은 물이 피처럼 눈물처럼 대야에 차고 넘쳐 시멘트 바닥에 웅덩이를 만든다. 〈파이란〉에서 가장 가슴 저리는 대목들은, 앞의 수돗가 장면처럼 강재에게 보낸 파이란의 편지가 말하지 않은 시간



을 영화가 보여줄 때다. 그때 관객은 여인의 편지를 읽은 강재의 상상을 보고 있거나, 혹은 강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는 셈이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강재의 회한을 나누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라면 우리는 파이란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파이란의 편지는 간소하다. 한국어가 서툰 그녀가 아는 단어는 한 움큼도 되지 않는다. 부사나 형용사는 아예 거의 없다. '친절하다', '고맙다', '좋아한다' 등의 단어가 반복된다. 그래서 그녀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웅덩이가 파여 있다. 그 웅덩이에는 고독과 신열, 오한이 괴여 있다. 마지막 편지에서 파이란은 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고 있는 사이에, 강재 씨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아하자 힘들게 됐습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나 힘들게 됐습니다."

파이란은 순진한 여인이라 강재를 어느새 진짜 남편으로 여기고 사모한 것일까? 하지만 강재에게 돈을 지불한 사람은 그녀다. 파이란도 그녀가 한 일이 거래이며 애틋한 감정이 자기위안에 불과함을 알았을 터다. 강재에게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가 다시 돌아와 도로 꺼내려 애쓰는 장면은 그 증거다. 기실 파이란의 감정은 절박한 생존본능이다. 결코 누리지 못했던 온기에 대한 상상적 애착이다. 요컨대 〈파이란〉은 제대로 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더 질기게 마음에 달라붙는다.

파이란(Failan)	116분 | 15세관람가
감 독 송해성 | **각 본** 안상훈, 송해성, 김해곤 **출 연** 최민식, 장백지, 공형진, 손병호 **제 작** 튜브픽쳐스 | **개 봉** 2001년 4월 28일	

28

플란다스의 개

Barking Dogs Never B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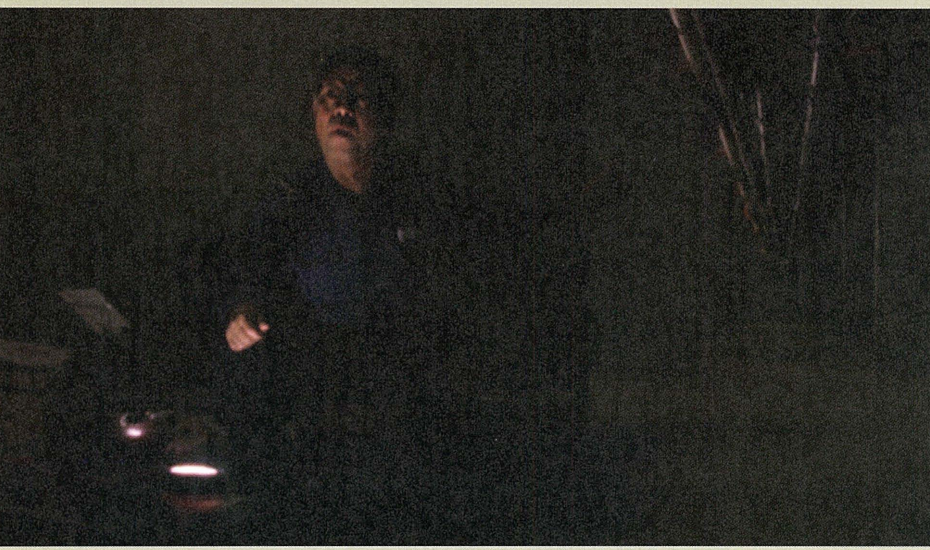
아파트 지하실 미스터리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주소가 분명하다. 그는 한강을 파리의 센 강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대신 오직 한강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실화에 기원한 〈살인의 추억〉 역시 1980년대 경기도 화성의 시공간과 떼놓을 수 없는 영화다. 갈아엎고 급조되기 일쑤인 한국의 공간에 감도는 모종의 '수상쩍음'이야말로 그의 창작 욕구를 간지럼 태우는 최초의 자극일지도 모른다. 봉준호의 첫 장편영화 〈플란다스의 개〉도 서울 아파트 단지를 거닐며 구상했을 법한 활극이다. 준공한 지 11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윤주(이성재)는 국문과 교수가 되려 하지만 연줄을 트지 못해 초조하다. 아내(김호정)에게 생계를 기대고 낮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는 그를 미치게 하는 것은, 이웃집 강아지의 소음. 울컥한 윤주는 강아지를 납치해 아파트 지하실에 버려진 장롱에 감금한다. 이렇게 시작된 개를 둘러싼 모험은, 아파트에 숨겨진 이면 공간과 도시 생활의 가려진 현실을 드러낸다.

정체 모를 파이프들이 구렁이처럼 벽을 달리고 주민들이 슬그

머니 내다 버린 잡동사니가 맥락 없이 섞여 쌓여 있는 아파트 지하실은 낯설다 못해 기괴하다. 윤주가 장롱의 빗장으로 쓰는 물건은, 주택에 살다 아파트에 입성한 누군가가 내다 버린 연탄집게다. 실수를 깨닫고 강아지를 살리러 다시 지하실을 찾은 윤주는, 경비원 변씨(변희봉)와 관리인이 보신탕을 끓이며 나누는 대화를 듣는다. "지하실 전체가 '이잉' 하는 소리 안 들리오?"라고 서두를 뗀 변씨는 전설을 들려준다. 1988년 올림픽 날림 공사 바람 속에 지어진 이 아파트의 입주 초기, 고장 잦은 보일러 수리를 위해 초빙된 장인 '보일라 김씨'가 현장소장과 시공업자의 비리를 꿰뚫어보고 호통을 쳤다가 몸싸움 끝에 죽었다는 것. 죄를 묻어버리기로 한 자들은 '보일라 김씨'의 시체를 지하실 벽에 넣고 발랐는데 이후로 밤만 되면 보일러가 전라도 억양으로 운다는 것. 괴담을 구성지게 읊는 변씨의 얼굴 뒤로 겹겹이 늘어선 지하실의 벽들은 음험한 비밀을 감춘 회색 커튼처럼 보인다. 그 이미지는 아득한 소실점을 향해 도열한 〈괴물〉의 한강 교각과도 유사하다.

현대식 건물에 전설이 어인 일인가 싶지만 아파트에는 의뭉스런 구석이 있다. 〈플란다스의 개〉가 몇 차례의 추격전을 연출해 보이는 복도식 아파트의 전경은, 다만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뿐인 ㅁ자형 감옥과 다를 바 없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빌려 놀이기구로 변조되곤 하는 정체 모를 구조물은 또 얼마나 많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지만, 모여 살아야 할 이유나 인연이 없는 이들의 집단 주거지이기에 지극히 잘게 분열되고 차단된 공간이다. 〈플란다스의 개〉는 누구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방치된 '공용면적'의 온갖 용도 변경을 드러낸다. 옥상에서는 할머니가 무말랭이를 널고, 노숙자는 옥탑과 지하실을 전전하며 잠자리를 빈다. 지하실은 주민들 보는 앞에서 발을 뻗지



못한 경비원의 휴게실도 된다(아파트 지하는 감독의 단편 〈지리멸렬〉에도 의미심장하게 등장하는 공간이다). 가난한 동네 애들이 지하실에 숨어 본드를 맡았다고 부녀회장이 난리를 치기도 한다.

〈플란다스의 개〉의 윤주는 분리수거를 하다 "우리나라는 원칙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불평한다. 그리고 12년 일해 1,648만 원 받은 아내의 퇴직금을 교수에게 뇌물로 바치러 간다. 가는 도중 지하철에서 걸인을 만난 윤주는 케이크 상자에 손을 넣어 뽑아낸 지폐 한 장을 적선하며 자위한다. 요컨대 이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적재적소에서 죄를 짓고 은폐하는 재주가 있느냐다. 보라. 한강 하수구에는 폐수가 낳은 괴물이 서식하고, 농촌의 배수로에는 여자들의 시체가 구겨 박혀 있다. 봉준호의 영화는 빙글빙글 웃다가 정색하며 묻는다. "당신은 이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고 믿나요? 천만의 말씀."

플란다스의 개(Barking Dogs Never Bite)	106분 | 12세관람가
감 독 봉준호 | **각 본** 봉준호, 손태웅, 송지호 **출 연** 이성재, 배두나, 김호정, 변희봉 **제 작** ㈜우노필름 | **개 봉** 2000년 2월 19일	

29 해피엔드
Happy End

비밀의 빛

최보라(전도연)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검은 밤하늘에 분골 같은 재가 날린다. 그녀에겐 남편(최민식)이 있고 애인 일범(주진모)도 있다. 결혼 전에 사랑했던 연인 일범과 다시 시작한 사랑도 이제 심지 끝까지 타들어가버렸다. 그녀는 남편에게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에는 다시 "같이 죽을까, 우리?"라고 애인에게 물었다. 보라의 얼굴은 파국에 대한 저항도, 행복을 향한 열망도 다 흘러나가 고적하다. 그때 아파트 아래쪽으로부터 노란빛의 덩어리가 서서히 떠오른다. 망자亡者의 집에서 끈이 떨어진 근조등謹弔燈이다. 보라의 눈썹 위로 둥실 떠오른 '죽음'은 은은히 발열한다. 보라는 놀라는 기색 없이 피안으로부터 온 '전령'에게 손을 뻗는다. 그 동작은 눈에 띄는 물건을 무작정 입에 넣는 젖먹이의 그것처럼 무구하다. 근조등 불빛은 어느새 아파트 실내를 비추고 보라와 민기의 결혼사진 위에 일렁거린다. 배우 전도연에게 이 신의 감정을 회고해달라고 청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매일 밤새워 촬영하던 시기라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나도, 그리고 보라

도 모든 게 꿈처럼 빨리 끝나주기만을 바랐던 것 같다."

〈해피 엔드〉의 끝에서 두번째 시퀀스인 근조등 신은 긴밀한 서사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빼도 무방하다. 이야기 골격에 못질 되어 있지 않아 영화 위에서 하느작거린다. 그래서 그림을 완성했는데도 남아 있는 퍼즐 조각처럼 우리를 흔들어놓는다. 위치도 미묘하다. 아내의 부정을 참지 못한 서민기는 보라를 냉혹하게 살해하고 일범에게 혐의를 씌운다. 수사가 종결되자 민기는 보라의 유품을 없애며 통곡하는데, 근조등 장면은 거기에 이어 디졸브(서서히 어두워지며 앞 장면이 사라지고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편집 방식)로 편집됐다. 그리고 관객은 거실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민기를 본다. 그러므로 근조등을 응시하는 보라의 모습은 민기의 꿈이었다고 하면 간단히 설명된다. 그러나 이 장면의 촬영은 꿈꾸는 자의 시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명징하고 앵글이 객관적이다. 보라를 지켜보는 눈은 감독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감독이 민기를 포함한 관객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싶은 보라의 이미지라고 추측해도 무방하다.

알려진 대로, 시나리오 단계에서 서민기는 아내를 백일몽 속에서만 해칠 수 있는 유순한 남자였다. 살인을 판타지로 처리할 경우, 근조등 신은 현실에서 환상으로 진입하거나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문턱 구실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지우 감독은 지금의 위치가 더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논리적이지 않아서 좋다. 이 장면을 말로 설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번번이 어색해진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란 대부분 말의 앞뒤를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느낌은 언제나 설명할 길 없는 곳에서 나온다." 개봉 당시 근조등 장면은, 부정한 여성이 징벌 받는 줄거리에 대한 사과의 제스처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다. 하지만 감독은 고개를



젓는다. 정말 변명이 필요했다면 훨씬 명료하게 했을 거라고.

죽음을 관객의 눈앞에 먼저 내던진 다음, 시간을 거슬러 죽음의 전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프라하의 봄〉의 결말과 비슷한 감흥을 준다. 비단 근조등 신뿐만이 아니다. 〈해피 엔드〉는 줄곧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영화다. 아기의 분유통 안에는 개미가 끓고 보라와 민기가 모는 자동차는 횡단보도를 침입하며 급정거하는 곡예를 되풀이한다. 〈해피 엔드〉의 주요 공간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긴 복도는 지평선 없는 도시에 소실점을 만들어낸다. 복도 저 끝에서 밀회를 위해 또각또각 걸어오는 여인은 '무無'로부터 서서히 실루엣을 갖추어간다. 그리고 밀회가 끝나면 영점으로 돌아간다.

해피 엔드(Happy End)	99분 | 18세관람가
감 독 정지우 | **각 본** 정지우 **출 연** 최민식, 전도연, 주진모, 황미선 **제 작** 명필름, 청년필름, 서울무비 | **개 봉** 1999년 12월 11일	

30 혈의 누

Blood Rain

익명의 섬

말뚝에 꿰어 죽이고, 끓는 물에 삶아 죽이고, 젖은 종이로 숨 막아 죽이고, 돌로 머리를 부수어 죽인다. 관官이 '처형'의 명분 아래 실행한 살인의 기교들은, 연쇄살인범의 손에 의해 모방되자 비로소 흉물스런 본질을 드러낸다. 목불인견의 살인이 줄지어 발생하는 곳은 조선의 외딴 섬 동화도. 섬의 특산물인 종이를 조정에 진상하기 전날 밤, 누군가 불을 질러 공물을 실은 배가 전소된다. 그러나 방화는 수사관을 초대하는 불꽃놀이에 불과했으니, 사건의 자초지종을 조사하러 군관 이원규(차승원) 일행이 섬에 상륙한 날부터 끔찍한 시체가 매일 한 구씩 생긴다. 유능한 수사관 이원규는 제지소를 세운 섬의 은인 강 객주(천호진)를 '천주쟁이'로 지목해,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한 발고자임을 밝혀낸다. 피살자들의 살해 방법은 객주 가족이 처형당한 그대로다. 빚을 탕감할 욕심과 공포 때문에 부당한 처형을 방관했던 주민들은, 원혼의 복수라며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킨다.

〈혈의 누〉의 탐정 이원규는 사건을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시선'을 넘어,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영향받는 '인물'

이다. 한 걸음 떨어져 보면, 〈혈의 누〉는 죄지은 아비를 둔 아들들의 결투다. 강 객주와 제지소를 동업한 양반 김치성(오현경)의 아들 김인권(박용우)은 객주를 존경하고 그 딸 소연을 사랑했다. '심허로(心虛勞, 특정한 공간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심장신경증)'가 있어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그는 아버지가 발고자들과 결탁해 저지른 수치스런 죗값을 손수 거두고자 한다. 한편 아버지를 청렴하고 강직한 법의 집행자로만 알았던 이원규는, 동화도 수사 과정에서 결백한 강 객주를 공적을 세우고자 서둘러 참형한 토포사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맞닥뜨린다. 말하자면 이원규가 치를 떨었던 살인범의 엽기적 행각은, 그의 아버지가 앞서 연출한 잔혹극의 재연에 불과한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 드러나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인물의 다양한 견해다. 강 객주는 홍길동의 '율도국'과 같은 공동체를 꿈꾼 근대인이다. 신분보다 능력으로 고하가 정해지는 사회가 그의 이상향이었다. 민심을 잡은 강 객주를 바라보는 양반 김치성의 불쾌감은 질투 이상이다. 그의 세계관에 따르면 백정에게 장부를 맡기고 아랫사람과 겸상하는 객주의 처사는, 하늘의 법과 세계의 구성 원리를 거스르는 불경이다. 두 이상주의자의 '아들'들은 불가피하게 자기 철학을 세우기보다 윗대의 위선을 캐내는 역을 한다. 아버지를 혐오하는 아들 인권은 염세주의자가 된다. 사태의 우여곡절을 목격한 그는 "강한 자에게 비굴하고 강자가 빈틈을 보이면 골수까지 파먹으려 하는 게 저들의 마음이다"라며 민중 역시 불신한다. 그리하여 인권은 오직 잘 죽는 법을 고심한다. "내 무덤은 바로 너다." 그가 연인에게 속삭이는 말은 아비의 악행에 의해 자신도 일찍이 죽었음을 고백한다. 강 객주를 경멸하는 '아들'은, 객주가 거둔 천출의 천애고아 두호(지성)다. 평소 주장과 달리 친딸 소연과 자신의 친밀함을 꺼리는 객



주의 태도에 두호는 환멸을 느낀다. 김치송이나 강 객주와 달리, 이원규의 아버지 이지상은 실리주의자다. 그는 흉년에 지주가 소작으로부터 취해 마땅한 몫은 '없다'고 원규를 가르치는데, 존경심으로 가득한 아들은 이를 '덕의 정치'에 대한 교훈으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아들이 잊어버린 아버지의 말은 차갑고 교만하다. "농사꾼은 소가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여물을 먹이는 법이다. 그래야 다시 소가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이야. 민심은 위험한 것이라 과불급이 없어야 한다. 만일 때를 놓친다면 칼로도 다스리지 못할 것이야."

그리하여 훼절과 몰염치의 사슬은 온 섬을 빙빙 둘러싼다. 섬 주민과 발고자들은 강 객주 가족을 배신했고 김치송은 강 객주를 질투했다. 강 객주는 두호의 믿음을 배신했고, 이원규는 부친에 대한 존경이 착각이었음을 깨닫는다. 최 차사는 사건을 덮어 벼슬길을 보존하도록 원규에게 권한다. 동화도의 악은 붙잡아 포박하거나 외과적으로 절제할 수 없는 물건이다. 그것은 오염된 우물물과 귀취(귀신의 악취)가 그렇듯, 액체와 기체의 상태로 섬을 휘감고 있다. 그럴수록 군중은 희생양을 찾아 혈안이 된다. 닭의 목을 자르고, 죄책감으로 미친 노인의 죽음을 은근히 바란다. 속죄양 한 마리가 기적을 부르지 못하면 다른 양을 찾아 나선다. 거열형으로 예고된 다섯번째 살인은 결국 네 마리 우마 대신 군중의 손에 떨어진다. 무수한 칼날이 제물 된 자의 몸을 쑤신다. 희생양이 쓰러진 뒤에도 칼날이 멈추지 않자 급기야 하늘이 노한 듯 붉은 비가 쏟아진다. 죽창처럼 내리꽂히는 혈의 누淚는 동화도의 모든 사람을 무차별하게 적신다. 이 대목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직전 장면까지 영웅답게 행동했던 이원규의 얼굴이다. 범인의 손에서 마지막 발고자를 구해 국법에 맡기기를 고집했던 이원규는, 마을 주민들이 포교들의 손에서 그를 탈취하자

내심 안도라도 하듯 쉽사리 포기한다. 만약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면 그의 가문도 명예를 잃었으리라. 마침내 합리로 대적할 수 없는 피의 비가 쏟아지자, 이원규의 얼굴에는 항복하려는 비겁한 미소가 엷게 스친다. 아니, 어쩌면 혈우는 죄의식에 짓눌린 군중들의 환각이었고, 이원규가 본 것은 아무도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 게 뻔한 광기였는지도 모른다. 체념한 이원규가 돌아가 몸을 웅크리는 곳은 범인의 둥지였던 제지소다. 뭍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그는 결정적 증거물을 없앨 것이다. 요컨대 〈혈의 누〉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패배의 기록이다. '심허로'는 〈혈의 누〉에 깊숙이 밴 비관을 은유하는 병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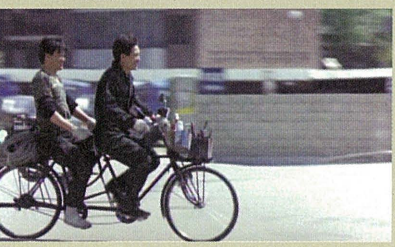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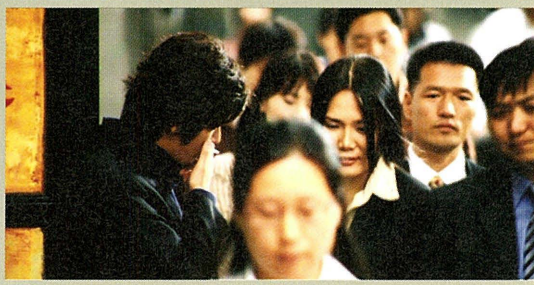
혈의 누(Blood Rain) 119분 | 18세관람가

감 독 김대승 | **각 본** 김성제, 이원재 | **각 색** 김대승
출 연 차승원, 박용우, 지성, 윤세아
제 작 주)좋은영화 | **개 봉** 2005년 5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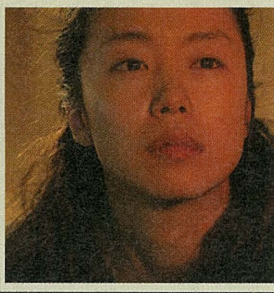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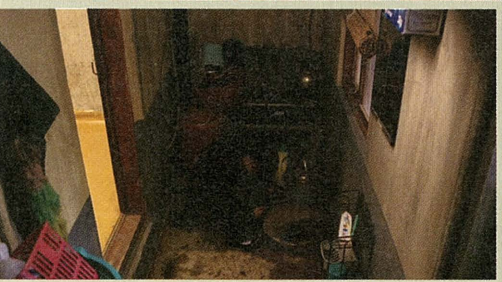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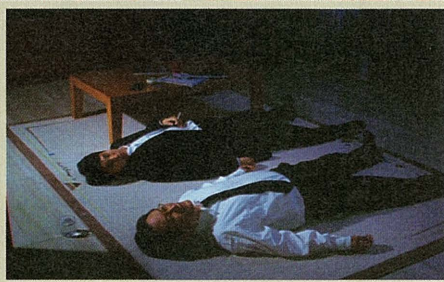








FilmStory 총서 05

영화를 걷추다_서른 편의 영화, 서른 개의 장면

2007년 12월 27일 초판 1쇄 찍음
2007년 12월 31일 초판 1쇄 펴냄

지은이 | 김혜리
기획 및 발간 | 한국영상자료원(KOFA)
사진 및 포스터 | 한국영상자료원(KOFA)
펴낸이 | 조선희
펴낸곳 | 한국영상자료원(KOFA)
주소 |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1602
출판등록 | 2007년 8월 3일 제313-2007-000160호
대표전화 | 02)3153-2001
팩스 | 02)3153-2080
e-mail | kofa@koreafilm.or.kr
편집 및 디자인 | 실천문학
인쇄 | 한영문화사
총판 | 실천문학

2007 ©한국영상자료원(www.koreafilm.or.kr)

ISBN 978-89-93056-04-4 04680
ISBN 978-89-953664-9-3 04680 (세트)

한국영상자료원이 펴내는

FilmStory 총서

01 **한국영화사**
한 권으로 읽는 영화 100년 | 정종화

02 **전설의 낙인**
영화감독 김기영 | 이연호

03 **광수의 영화공장**
한 편의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김조광수

04 **조국근대화를 유람하기**
박정희정권 홍보드라이브, 〈팔도강산〉 10년 | 김한상

05 **영화를 멈추다**
서른 편의 영화, 서른 개의 장면 | 김혜리

06 **이장호 VS 배창호**
1980년대 한국영화의 최전선 | 김영진

07 **배우의 얼굴 24시**
안성기부터 이나영까지 | 백은하



"잠깐!" 흐르는 삶을 붙잡아 가둔 영화 안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의미심장해서, 잠시 멈추어 응시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은 비범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영화 비망록을 엿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한 영화의 베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세상 모든 관객의 '정지된 영화'가 벽 가득히 걸린 화랑 한가운데 누워 잠드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_김혜리

9 788993 056044 04680
ISBN 978-89-93056-04-4 값 8,000원
ISBN 978-89-953664-9-3(세트)